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
이재호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 · 이재호

연구자료 16-02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인 쇄 2016년 9월 7일
발 행 2016년 9월 13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14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 02-2269-9917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418-3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베트남은 성장세의 둔화를 경험했다. 최근 FDI 유입 증가, 양자·다자 FTA의 확대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 그리고 1억에 육박하는 인구규모 등 긍정적인 대내여건의 개선은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FDI 유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사상최대인 145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부패, 숙련인력 부족, 국영기업 비효율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사업환경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Doing Business 평가는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189개국 중에서 90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투자법 및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절차 및 인력고용상의 편의를 개선하면서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기업도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채택하고 대동남아 투자액의 40% 이상을 투자했다. 향후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과 한국 기업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 맞는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는 1986년 개혁·개방 노선의 채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베트남으로 대규모 FDI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투자 업종이 기존 노동집약산업에서 기계, 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전기·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부터 점차 추가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점차 그 분야도 다각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2009년 베·일 EPA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일본 전용공단을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일본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해왔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교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5년 베트남의 TPP 체결로 양자간 교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이 아시아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베 정상외교의 교환 방문은 TPP 발효, 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의 대베트남 진출에 대응해 FDI 유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노동자 및 인프라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의 편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물리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기존 태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1’ 형태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국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FDI 이외에도 최근 M&A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 형태는 크게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진출형태는 초기 단독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반 혹은 기존 진출업체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규모 ODA 사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성향도 강하다. 반면 미국기업들은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후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베 경제교류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교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자간 개방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경우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 일본 기업의 투자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은 물론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진출 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간

생산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의 진출 초기 고정투자비용 부담과 정보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1'의 형태로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연계해 외생적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차례

| | |
|---|-----------|
| 국문요약 | 3 |
| 제1장 서론 | 12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 2. 선행연구 | 15 |
| 3. 연구의 구성 | 18 |
|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 | 19 |
| 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 19 |
| 2. 베트남의 투자여건 | 25 |
|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 31 |
| 제3장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 ... | 34 |
| 1. 개황 | 34 |
|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 35 |
|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35 |
| 나.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41 |
|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 45 |
| 3. 베트남의 대응 | 48 |
| 제4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분석 | 51 |
| 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 51 |
|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 51 |
|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 54 |

| | |
|--------------------------------|-----------|
|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 67 |
|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 67 |
|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 70 |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74 |
| 1. 요약 | 74 |
| 2. 시사점 | 77 |
| 참고문헌 | 82 |
| Executive Summary | 87 |



표 차례

| | |
|--|----|
| 표 2-1.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8~15년) | 19 |
| 표 2-2. 베트남의 연도별 FDI 유치액 추이(2000~15년) | 20 |
| 표 2-3. 주요국의 업종별 對베트남 투자건수와 투자액 | 22 |
| 표 2-4.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추이(2010~15년) | 23 |
| 표 2-5.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0~15년) | 24 |
| 표 2-6.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미국 국무부 분석 | 26 |
| 표 2-7.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국별·부문별 순위(2016년) | 27 |
| 표 2-8. 베트남의 Doing Business 세부 항목별 순위 변화(2015~16년) .. | 28 |
| 표 2-9.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사례 | 32 |
| 표 3-1. 한국의 부문별 對베트남 FDI | 37 |
| 표 3-2. 對베트남 20대 주요 투자분야 | 39 |
| 표 3-3. 일본의 부문별 對베트남 FDI | 43 |
| 표 3-4. 베트남의 일본 전용공단 설립 사례 | 44 |
| 표 3-5. 미국의 부문별 對베트남 FDI | 47 |
| 표 3-6. 미국,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특징과 베트남 정부의 정책대응 | 48 |
| 표 4-1. 일본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유형과 장단점 | 60 |
| 표 4-2. 일본의 연도별 對베트남 유상원조 분야별 지원 추이 | 62 |
| 표 4-3. 일본의 연도별 對베트남 무상원조 분야별 지원 추이 | 63 |
| 표 4-4. 일본의 연도별 對베트남 기술협력 분야별 지원 추이 | 64 |
| 표 4-5.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재정지원) | 65 |
| 표 4-6.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비재정지원) | 66 |
| 표 4-7. 미국기업의 시기별 베트남 진출 특성 | 68 |
| 표 5-1. 주요 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2015~20년) | 74 |

표 5-2. 주요국의 對베트남 투자 특징 76
표 5-3. 주요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행태 77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베트남의 국별 FDI 유치규모 비교 | 21 |
| 그림 2-2. 미국의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2005~14년) | 25 |
| 그림 2-3. 신투자법의 외국인 투자허가 과정 | 30 |
| 그림 3-1. 베트남 FDI 유입 추이 | 36 |
| 그림 3-2. 2014년 한국의 對베트남 부문별 FDI 현황 | 38 |
| 그림 3-3. 한국의 對베트남 FDI 현황 | 40 |
| 그림 4-1. 일본의 對베트남 FDI 추이(2005~15년) | 52 |
| 그림 4-2. 일본의 對베트남 M&A | 53 |
| 그림 4-3. 앵커기업을 활용한 클러스터형 진출전략 흐름도 | 55 |
| 그림 4-4. 일본기업들의 앵커기업 중심 클러스터화 진출전략 도시 | 56 |
| 그림 4-5. Canon社의 클러스터 구성 사례 | 57 |
| 그림 4-6. Nokisaki 개념 | 59 |
| 그림 4-7. 미국의 對베트남 FDI 추이(2002~15년) | 6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지로 각광받던 베트남이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FDI는 2015년 한 해 동안 신규투자금액만 약 156억 달러, 추가투자가 약 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¹⁾ 2016년 1월에만 해도 이미 127건의 신규투자 허가과 10.1억 달러의 신규투자 허가, 그리고 3.2억 달러의 추가투자가 유입되었다.²⁾ 신규투자 허가건수와 투자허가액은 2015년 1월 실적 대비 각각 188.6%, 157.9% 성장했다. 베트남 정부가 추가적으로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으로 FDI가 유입되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으로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내수시장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고, 한·베트남 FTA, 베트남·EU FTA, TPP 등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어 대외시장 접근성이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의 FDI 유치 의지를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가 2016년 1월에 교체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역

1)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빠르게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대비 약 60% 수준이다.

동적인 경제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6.68%로 추정된 반면, 산업생산은 9.64%까지 성장했다.⁴⁾ 반면에 세계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베트남 물가는 2015년에 단지 0.6% 상승에 그쳤다. 안정된 물가 속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베트남 거시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초반 해도 베트남 경제가 사실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인한 긴축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외환위기 직전까지 몰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베트남의 거시경제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다. FDI의 유입 증가로 201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FDI의 유입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확대했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수출부문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2009년 삼성의 휴대폰 공장 설립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출발점이다. 그 후 삼성은 對베트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생산량을 확대했고, 결국 총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의 베트남 진출 이후, 중국을 떠난 많은 다국적 전자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베트남 섬유·봉제 수출부문도 빠르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26억 달러의 총수출을 기록하면서 2014년 대비 8.2%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EU와의 FTA와 TPP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EU 시장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2015년 전체 베트남 수출의 19%가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트남·EU FTA의 타결은 양자간의 교역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⁵⁾

또한 TPP의 비준도 베트남의 수출에,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2015년 전체 수출의

4)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

5)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⁶⁾ 만일 TPP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평균관세는 현재 18%에서 0%로 떨어진다. TPP가 작동한다면 베트남 섬유봉제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길어야 5년 내에 베트남 섬유봉제업의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2014년 하노이 한인상공회장의 예측은 당분간 기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⁷⁾ 또한 원산지 규정이 원사기준(Yarn forward)으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원사업체들의 투자도 기대된다. 이처럼 양자 또는 다자간 추진된 대외개방 노력은 결국 베트남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 아세안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도 베트남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베트남을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수출품 생산기지로서 기능하게 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적절한 내수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EC가 추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항공운수의 자유화도 베트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다보니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⁸⁾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6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10년 전보다 7배가 많은 4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도 2005년에는 69.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우리보다 조금 적은 384.1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투자규모는 작지만 2015년에 107.8억 달러를 투자해 2005년보다 5배 정도 투자를 늘렸다. 이러한 FDI 유입 증가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한 이유는 한국기업이 베트남 인적자원에 대해

6)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

7) 광성일 외(2014), p. 169 각주 97.

8) Thai(MPI) 면답자료(2016. 3. 30).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 베트남을 활용하기로 한 내부 전략 때문일 것이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투자가 최근 들어 다시 쏠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험 분산 측면에서 투자지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2011년과 2012년에 20%대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4년과 2015년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투자의 40% 이상이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다.⁹⁾

투자의 집중과 동시에 투자의 성격 또한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전략의 방향성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베트남이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 정치적 위험성, 은행부문의 위험, 낮은 세계경쟁력 지수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우리에게 제2의 중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동남아 최적 투자지인가에 관해 고민해 봐야 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진출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주요 투자국의 베트남 진출전략과 사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진출방식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주요 투자국의 진출방식과 비교해 우리 방식에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를 수정해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2. 선행연구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 다수 존재한다. Nguyen Mai(2003)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FDI가 국가수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베트남은 FDI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협력자를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Freeman(2002)는 2002년까지 베트남에 유

9) 한국수출입은행, 온라인 해외투자 통계(검색일: 2016. 3. 5).

입된 FDI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베트남이 FDI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한 FDI 정책 체계의 약점을 분석하고,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가 해외투자자의 사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FDI 유입정책의 개선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Nguyen Thi Phuong Hoa(2004)는 빈곤과 FDI의 연관성을 분석의 기본 틀로 삼아 FDI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FDI가 자산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FDI와 인적자본 간에 상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그렇지만 FDI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Nguyen Thi Tue Anh *et al.*(2006)은 베트남에서 FDI가 국내 자본의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임을 보였다. 베트남 내국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FDI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함을 보였다. 다시 말해 FDI가 유입된 산업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은 베트남 정부가 FDI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근거이다.

다른 한편 일부 학자는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이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FDI와 교역과의 관계를 연구했지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특히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FDI 유입은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중간재의 도입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잘 목격할 수 있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실증연구가 교역과 FDI가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었다(Lipsey and Weiss 1981, 1984; Blomstrom *et al.* 1988; Yamawaki 1991; Fukasaku *et al.* 2000). 반면 최근 들어 Beugelsdijk *et al.*(2008)은 다시 FDI가 교역과 대체관계임을 보였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연구로는 Giroud(2007), Xuan and Xing(2008), Anwar and Nguyen(2011) 등으로 FDI가 교역과 보완관계임을 보였다. Giroud(2007)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FDI의 수직적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활

동하는 FDI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에 비하여 베트남 기업이 FDI로부터 파급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Xuan and Xing(2008)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수출성장과 FDI 간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FDI가 1% 증가할 때 0.13% 수출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 연구는 FDI가 베트남의 수입과 순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까지 베트남의 수입이 수출보다 큰 이유를 FDI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의 상당부분이 베트남의 생산역량 확장에 활용되었고, 이는 다시 베트남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국가로 변환시켰음을 나타낸다. Anwar and Nguyen(2011)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베트남 투자와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개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FDI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3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겪는 동안. 이들은 교역과 투자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또한 FDI와 수출, FDI와 수입 간에도 보완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선행연구가 보여주듯이 FDI 유입은 베트남의 교역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FDI의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 반응하듯이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진출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투자국인 일본과 미국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진출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대부분 베트남 연구는 현황 제시에 머물고 있으나 본 연구는 주요국의 진출전략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처럼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진출과 FDI 투입이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아니고,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점검하고 이로인한 진출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의 구성을 소개한다. 2장은 경제성장률, 무역, 투자 등 베트남 거시경제 현황 및 투자여건에 대해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베트남의 대응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을 분석한다. 연구범위를 미국과 일본에 한정 한 이유는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TPP 타결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면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신생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베트남 진출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을 우선으로 한 반면 미국은 투자보다는 교역에 집중한 모습이다. 최근 우리기업이 베트남 내수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어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미국도 또한 FD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일본과 미국의 사례로부터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

1.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황: 경제성장, FDI, 수출

2000년대 초중반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동남아의 대표적인 신흥국가로 주목받아온 베트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전후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및 FDI 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국내 부동산 및 증시 버블 붕괴, 비나신(Vinashin)사의 채무 불이행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자 베트남 경제 위기설까지 제기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트남 정부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물가안정, FDI 유치를 통한 산업고도화, FTA를 통한 자유화 등 경제구조 및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이후 물가, 교역, 투자, 산업구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2015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68%를 달성했다(표 2-1). 또한 FDI 유입 증가는 베트남이 고도성장세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표 2-1.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8~15년)

| 지표 | 단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명목GDP | 십억 달러 | 99.1 | 106.0 | 115.3 | 135.7 | 155.8 | 171.2 | 186.2 | 200.2 |
| 경제성장률 | % | 5.7 | 5.4 | 6.4 | 6.2 | 5.2 | 5.4 | 6.0 | 6.7 |
| 1인당 GDP | 달러 | 1,145 | 1,212 | 1,305 | 1,519 | 1,725 | 1,874 | 2,015 | 2,142 |
| 수출 | 십억 달러 | 69.7 | 66.8 | 83.1 | 107.8 | 124.7 | 143.2 | 160.9 | 176.3 |

표 2-1. 계속

| 지표 | 단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수입 | 십억 달러 | 83.3 | 77.7 | 92.5 | 113.4 | 119.2 | 139.5 | 154.8 | 166.4 |
| 연평균환율 | 동/달러 | 16,302 | 17,065 | 18,707 | 20,482 | 20,828 | 20,933 | 21,148 | 21,67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3.1 | 7.1 | 8.9 | 18.7 | 9.1 | 6.6 | 4.1 | 0.6 |
| 총외채비율 | %/GDP | 26.7 | 31.2 | 38.9 | 39.1 | 37.9 | 38.2 | 38.6 | 41.3 |

자료: IHS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3. 14).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베트남 국내기업의 성장보다는 FDI 유치 증가에 힘입은 경향이 크다. 일례로 2015년 베트남 상품수출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에 달하며,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부상한 휴대전화 및 전자제품 또한 대다수 외국인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의 FDI 유치규모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30억 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년간 FDI 유치규모가 정체되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약 14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FDI를 유치했다(표 2-2).

표 2-2. 베트남의 연도별 FDI 유치액 추이(2000~15년)

(단위: 건, 억 달러)

| 연도 | 투자 건수 | 등록자본금 | 투자실현액 |
|------|-------|-------|-------|
| 2000 | 391 | 27.6 | 24.0 |
| 2001 | 555 | 32.7 | 22.3 |
| 2002 | 808 | 29.9 | 28.8 |
| 2003 | 791 | 31.7 | 27.2 |
| 2004 | 811 | 45.3 | 27.1 |
| 2005 | 970 | 68.4 | 33.0 |
| 2006 | 987 | 120.0 | 41.0 |

표 2-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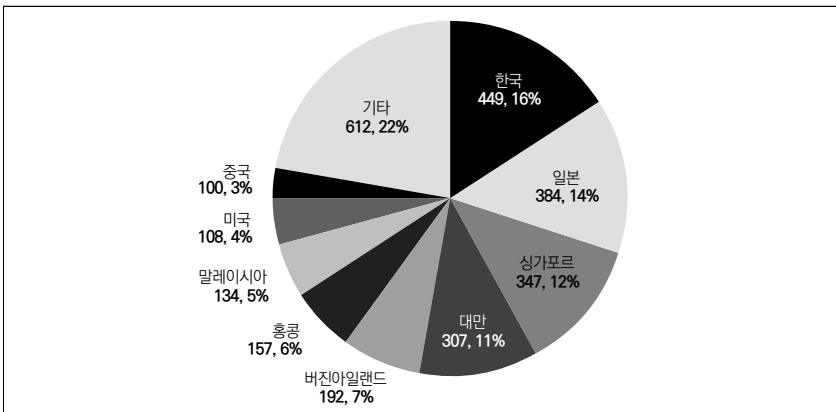
| 연도 | 투자 건수 | 등록자본금 | 투자실현액 |
|------|-------|-------|-------|
| 2007 | 1,544 | 213.5 | 80.3 |
| 2008 | 1,171 | 717.3 | 115.0 |
| 2009 | 1,208 | 231.1 | 100.0 |
| 2010 | 1,237 | 198.9 | 110.0 |
| 2011 | 1,191 | 156.2 | 110.0 |
| 2012 | 1,287 | 163.5 | 100.5 |
| 2013 | 1,530 | 223.5 | 115.0 |
| 2014 | 1,843 | 219.2 | 125.0 |
| 2015 | 2,013 | 222.6 | 145.0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검색일: 2016. 3. 14).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이 현재 최대 투자국이며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과 경쟁하는 구도이다(그림 2-1).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은 베트남을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우회수출에 집중했다. 반면에 일본은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부터 내수시장을 선점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 베트남의 국별 FDI 유치규모 비교

(단위: 억 달러, %)



주: 2015년 12월 20일 누적 등록자본금 기준.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2016년 2월 29일판), p. 20.

JETRO 호치민 사무소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개방 초기인 1990년대 초기부터 오토바이,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수시장을 선점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을 전략적인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현재 약 3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투자에서 삼성을 제외한다면 일본이 여전히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¹⁰⁾

최근 베트남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한 한국기업들의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진출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의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내수시장을 선점한 일본기업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일본은 일찍이 도소매업에 진출해 10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한 반면 한국은 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표 2-3). 베트남 내수시장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일본의 베트남 진출 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표 2-3. 주요국의 업종별 對베트남 투자건수와 투자액

| 순위 | 한국 | 일본 | 미국 | 중국 |
|----|-----------------------|-------------------------|-----------------------|---------------------|
| 1 | 제조업 (3,034/\$317억) | 제조업 (1,490/\$319.7억) | 호텔 (20/\$52억) | 제조업 (916/\$54억) |
| 2 | 부동산 (93/\$65억) | 건설 (76/\$11.6억) | 제조업 (346/\$28.2억) | 에너지 (4/\$20억) |
| 3 | 건설 (663/\$32억) | 도소매 (318/\$10억) | 과학기술 (100/\$1.72억) | 광업 (10/\$16.7억) |
| 4 | 도소매 (321/\$5.94억) | 정보통신 (360/\$8.17억) | 정보통신 (142/\$0.61억) | 건설업 (105/\$3.0억) |
| 5 | 과학기술 (326/\$2.35억) | 과학기술 (372/\$3.06억) | 도소매 (62/\$0.486억) | 도소매업 (132)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투자건수와 금액을 각각 나타낸다.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자료(2016. 3. 3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0) 이재호(2016).

국가별 수출의 경우 2015년 기준 미국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표 2-4). 2001년까지는 일본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2001년 무역정상화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 2006년 항구적무역정상화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수립, 2007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미국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2015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되어 향후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2-4.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추이(201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국명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
| 1 | 미국 | 169.7 | 732.8 | 5,924.0 | 14,238.1 | 33,725.0 |
| 2 | 중국 | 361.9 | 1,536.4 | 3,228.1 | 7,742.9 | 16,868.4 |
| 3 | 일본 | 1,461.0 | 2,575.2 | 4,340.3 | 7,727.7 | 14,189.1 |
| 4 | 한국 | 235.3 | 352.6 | 663.6 | 3,092.2 | 8,923.3 |
| 5 | 홍콩 | 256.7 | 315.9 | 353.1 | 1,464.2 | 6,953.0 |
| 6 | 독일 | 218.0 | 730.3 | 1,085.5 | 2,372.7 | 5,743.4 |
| 7 | UAE | - | 23.8 | 121.6 | 508.3 | 5,697.5 |
| 8 | 네덜란드 | 79.7 | 391.0 | 659.2 | 1,688.3 | 4,793.4 |
| 9 | 영국 | 74.6 | 479.4 | 1,015.8 | 1,681.9 | 4,667.4 |
| 10 | 말레이시아 | 110.6 | 413.9 | 1,028.3 | 2,093.1 | 3,517.1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검색일: 2016. 3. 14).

[표 2-5]는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를 나타낸다. 2015년 중 베트남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의 합이 약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5.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추이(2010~15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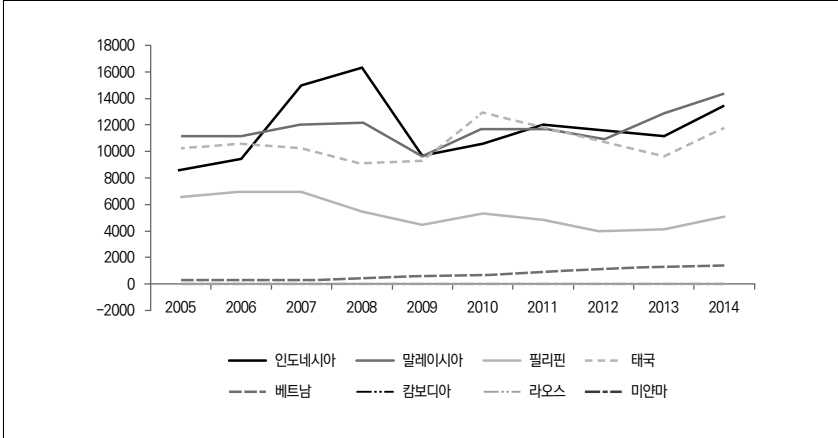
| 순위 | 국명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1 | 중국 | 20,203.6 | 24,866.4 | 29,035.0 | 36,886.5 | 43,710.6 | 50,326.5 |
| 2 | 한국 | 9,757.6 | 13,175.9 | 15,535.4 | 20,677.9 | 21,763.2 | 27,600.4 |
| 3 | 일본 | 9,016.1 | 10,400.7 | 11,602.1 | 11,558.3 | 12,925.8 | 14,416.0 |
| 4 | 대만 | 6,976.9 | 8,556.8 | 8,534.2 | 9,402.0 | 11,079.2 | 11,027.7 |
| 5 | 태국 | 5,602.3 | 6,383.6 | 5,791.9 | 6,283.4 | 7,092.8 | 8,327.7 |
| 6 | 미국 | 3,766.9 | 4,529.2 | 4,826.4 | 5,223.8 | 6,296.8 | 7,700.3 |
| 7 | 싱가포르 | 4,101.1 | 6,390.6 | 6,691.0 | 5,685.2 | 6,838.9 | 6,071.2 |
| 8 | 말레이시아 | 3,413.4 | 3,919.7 | 3,412.0 | 4,095.9 | 4,207.4 | 4,159.1 |
| 9 | 독일 | 1,742.4 | 2,198.6 | 2,377.3 | 2,954.0 | 2,619.9 | 2,760.0 |
| 10 | 인도네시아 | 1,909.2 | 2,247.6 | 2,247.4 | 2,367.4 | 2,493.8 | 2,754.8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검색일: 2016. 3. 14).

아세안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액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그림 2-2). 반면 아세안 후발국가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액은 2014년 기준 약 14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아세안 선도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지속적으로 등락해온 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아세안 회원국과의 교역에 집중된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 이후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림 2-2. 미국의 동남아 주요국에 대한 직접투자 추이(2005~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http://www.bea.gov>, 검색일: 2016. 3. 14).

2. 베트남의 투자여건

베트남으로의 투자에 주요국들이 관심을 늘리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국별 투자환경 전반을 분석하는 미국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Investment Climate Statement)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투자여건 개선을 높게 평가한 반면 인력, 인프라, 제도, 부정부패 등 만성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표 2-6).

최근 베트남 투자여건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정치·경제적 안정성, FTA를 통한 적극적 자유화 노선, TPP 효과, Post-China로서의 전략적인 가치 등을 들었다. 또한 최근 기업법, 투자법, 주택법, 부동산법 등 주요 법률 개정, 베트남 외환당국의 안정적인 환율 관리 노력, 국영기업 민영화 등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개혁 또한 향후 베트남의 투자환

표 2-6.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미국 국무부 분석

| 긍정적 요소 | 부정적 요소 |
|------------------------------|------------------|
| · 글로벌 공급사슬 접근성 강화 | · 숙련인력 부족 |
| · 부패·국영기업 개혁 지속 | ·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부족 |
| · 정치 경제적 안정성 | · 내수시장 기반 취약 |
| · 정부의 적극적 산업화 의지 | · 법률 기반 미약 |
| · 글로벌 ICT 기업들의 선호 | · 부정부패 상존 |
| · FTA, TPP, RCEP 등 자유화 조치 지속 | · 노사분쟁 |
| · 역내통합(AEC) 과정 비교우위 향유 | · 국영기업 개혁 부진 |
| · 대규모 개발사업(교통, 에너지 등) 지속 | · 부동산 활용 제한 |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2015), p. 3 요약 정리.

경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숙련인력 부족,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부족, 내수시장 기반 취약, 부정부패, 국영기업 개혁 부진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상존하고 있다.

전 세계 국별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 분석하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6년 전 세계 189개 분석대상국 중에서 90위로 중위권 순위를 기록했다(표 2-7). 이는 2015년 93위에 비해서 순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East Asia & Pacific) 11위,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12위 수준이다.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싱가포르(1위), 말레이시아(18위), 태국(49위) 등에 비해서 낮지만 필리핀(103위), 인도네시아(109위)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10개 세부 항목 중에서 베트남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항목은 건축허가(12위), 재산권등록(58위), 자금조달(28위) 등이다. 특히 건축허가 부문의 경우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베트남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베트남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가 10개로 동아시아태평양 평균 14.7개, OECD 평균 12.4개보다 적어 현지 건물 혹은 공장 건설 관련 허가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건축허가와 함께 높은 순위를 기록한 자금조달 항목은

표 2-7.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국별·부문별 순위(2016년)

| 순위 | 국가명 | 개업 | 건축허가 | 전력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자 보호 | 납세 | 통관 | 계약 이행 | 청산 |
|-----------|------------|------------|-----------|------------|-----------|-----------|------------|------------|-----------|-----------|------------|
| 1 | 싱가포르 | 10 | 1 | 6 | 17 | 19 | 1 | 5 | 41 | 1 | 27 |
| 4 | 한국 | 23 | 28 | 1 | 40 | 42 | 8 | 29 | 31 | 2 | 4 |
| 15 | 독일 | 107 | 13 | 3 | 62 | 28 | 49 | 72 | 35 | 12 | 3 |
| 18 | 말레이시아 | 14 | 15 | 13 | 38 | 28 | 4 | 31 | 49 | 44 | 45 |
| 34 | 일본 | 81 | 68 | 14 | 48 | 79 | 36 | 121 | 52 | 51 | 2 |
| 49 | 태국 | 96 | 39 | 11 | 57 | 97 | 36 | 70 | 56 | 57 | 49 |
| 68 | 카타르 | 109 | 8 | 111 | 28 | 133 | 122 | 1 | 119 | 112 | 51 |
| 84 | 중국 | 136 | 176 | 92 | 43 | 79 | 134 | 132 | 96 | 7 | 55 |
| 90 | 베트남 | 119 | 12 | 108 | 58 | 28 | 122 | 168 | 99 | 74 | 123 |
| 103 | 필리핀 | 165 | 99 | 19 | 112 | 109 | 155 | 126 | 95 | 140 | 53 |
| 109 | 인도네시아 | 173 | 107 | 46 | 131 | 70 | 88 | 148 | 105 | 170 | 77 |
| 127 | 캄보디아 | 180 | 181 | 145 | 121 | 15 | 111 | 95 | 98 | 174 | 82 |
| 134 | 라오스 | 153 | 42 | 158 | 66 | 70 | 178 | 127 | 108 | 92 | 189 |
| 167 | 미얀마 | 160 | 74 | 148 | 145 | 174 | 184 | 84 | 140 | 187 | 162 |

자료: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 검색일, 2016. 3. 14).

최근 신용정보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신용자료 조회가 보장되면서 순위가 8단계 상승했다. 전력 부문의 경우 10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지만 전력연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감소해 2015년에 비해서 22단계나 상승했다. 개업 항목 또한 회사 직인 등록 기간이 크게 감소해 순위가 6단계 상승했다.

Doing Business의 국별·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건축허가(12위), 자금조달(28위) 등 현지 비즈니스에 중요한 항목에서 우위를 보인다(표 2-7). 특히 제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및 자금조달 항목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어, 베트남 현지 비즈니스는 물론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여했다.

11)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vietnam/#dealing-with-construction-permits>(검색일: 2016. 3. 14).

표 2-8. 베트남의 Doing Business 세부 항목별 순위 변화(2015~16년)

| 세부 항목 | 2015 | 2016 | 순위 변화 |
|---------|------|------|-------|
| 개업 | 125 | 119 | 6 |
| 건축허가 | 12 | 12 | 0 |
| 전력 | 130 | 108 | 22 |
| 재산권등록 | 58 | 58 | 0 |
| 자금조달 | 36 | 28 | 8 |
| 소액투자자보호 | 121 | 122 | -1 |
| 납세 | 172 | 168 | 4 |
| 통관 | 98 | 99 | -1 |
| 계약이행 | 74 | 74 | 0 |
| 퇴출 | 125 | 123 | 2 |

자료: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 검색일: 2016. 3. 14).

또한 베트남은 다양한 투자 유인책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베트남은 기업소득세 감면, 수입관세 면제, 토지사용료 면제 등 주로 이 세 가지 투자유인책을 활용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모든 FDI 프로젝트에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정부가 발전을 양망하는 부문의 투자사업과 투자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4년 베트남이 개정된 투자법에 명시된 투자 장려분야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¹²⁾ 첫째, 6조 베트남 동(VND), 즉 약 미화 3억 달러 이상의 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발행 후 3년 내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¹³⁾ 2014년 개정된 신투자법은 2005년 투자법에 비교할 때 투자관련

12) 201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13) 베트남 정부는 신소재개발사업, 신에너지원, 금속 및 화학산업, 하이테크 제조업, 생명공학, 정보기술, 기계공학, 농업, 수산업 및 임업제품, 소금생산, 신식품의 동식물 개발, 환경보호, 연구개발, 지식기반 서비스, 가공 및 제조업 등의 산업을 강조했다(Thai(MPI) 면담자료, 2016.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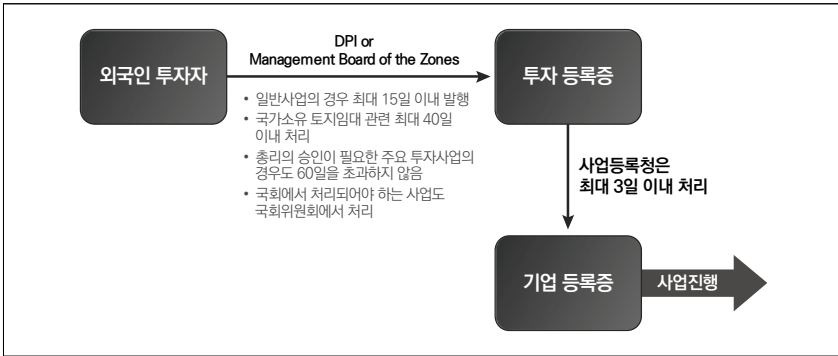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투자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등록증(Enterpris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과 분리했다(그림 2-3).¹⁴⁾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사업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투자등록증만 조정하면 되고, 기업의 설립 관련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기업법을 따르면 된다. 둘째, 투자진출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명확히 밝혀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사전에 법률이 금지하는 업종을 식별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셋째, 투자등록 관련 과정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신규로 투자등록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15일 이내, 투자등록증의 조정은 10일 이내로 제한하였다.¹⁵⁾ 넷째,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등록, 발행, 투자등록증을 온라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단계가 명료해지고 단축됨에 따라 투자활동의 편이성이 개선되었다. 투자법 시행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그 시행령으로 총리령 118을 2015년 12월 27일 발표했다. 투자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다. 2005년 투자법에 비교해 보면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4)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이 1%만 되어도 투자허가(Investment certificate)를 받아야 했지만, 외국인투자 지분이 51%를 넘을 경우 투자등록증과 사업등록증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51%에 미달할 경우 베트남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사업등록증만 신청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Thai(MPI) 면담자료, 2016. 3. 30).

15) 2014년 투자법 37항과 40항에 소요기간을 명시하였다.

그림 2-3. 신투자법의 외국인 투자허가 과정



자료: Thai(MPI) 면담자료(2016. 3. 30).

다른 한편 외국의 투자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중고 자본재 수입 관련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용된 지 5년 이하 장비나 기계 가운데 신제품 품질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였다.¹⁶⁾ 그러나 2015년 11월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중고 장비나 기계류의 수입에 있어 사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베트남의 기술 표준을 만족하거나 G7 국가의 안전성, 에너지 효율,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¹⁷⁾ 10년이 초과하는 장비나 기계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해외투자기업의 중고기자재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투자기업에 큰 혜택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도 그 시행령을 최근 수정하였다. 2013년에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정을 Decree 102/2013/ND-CP로 발표하였던 것을 2016년 4월 1일 Decree 11/2016/ND-CP로 바꿔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전문가, 기술자, 전문경영자가 30일 이하 동안 체류하거나 일 년에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물 때 취업허가(work permit) 신청을 면제해

16) Circular No. 20/2014/TT-BKHCHN .

17) Circular No. 23/2015/TT-BKHCHN(2015/11/13).

주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과거에는 최소한 5년 동일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 한국기술자가 베트남에 취업허가 없이 입국해 장비를 수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은 전문가의 정의를 완화했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또는 그 전문성을 다른 기관이나 조직,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베트남에서 동일 분야에서 최소 3년 종사한 경험이 있으면 전문가로 인정해준다. 중간관리자와 기술자가 부족한 베트남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완화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장에서라도 장비결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표 2-9]는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결과이다. 베트남 시장의 강점 혹은 기회 요소로 파악한 내용은 대체로 최근 경제성장과 개혁·개방 기조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개혁의지 등은 향후 베트남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화 기회 증대, 국영기업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의지 등은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와 WTO 가입, 대미 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재정적자, 공직자 부정부패 등의 약점과 디플레이션 우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의 위기요인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 베트남의 정치체제나 경제성장을 저해할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

표 2-9. 베트남 정치·경제에 대한 SWOT 분석 사례

| 강점(Strengths) | 기회(Opportunitie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68%의 높은 경제성장률 · 9천만 명의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확대 ·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 정부의 지속적인 국영기업, 금융권 개혁 ·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및 다각화 · 정치적 안정, 시장 친화적 개혁 기초 · 국회의 대정부 견제 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FTA, AEC 등 글로벌화 기회 증대 · 도시화 지속('93:32%→'40:50%) ·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 · 대미관계 개선 · 정부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M&A 시장 활성화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수요 확대 |
| 약점(Weaknesses) | 위협(Threat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베트남 내 지원 산업(원부자재, 부품소재 등) 기반 취약 · 베트남 정부와 국영기업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애로 · 막대한 재정적자와 사회부조 지출 부담 · 통화약세 수출 인센티브 약화, 수입 부담 증가 · 행정 및 법률 집행의 투명성 부족 · 공직자 부정부패 · 지적 재산권 보호 미흡 · 정치적 자유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침체 → 수출 감소 및 디플레이션 우려 · 높은 수출의존도로 대외경제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불안전성 가능성 · FTA, TPP, 및 AEC 등 개방조치로 해외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와 내수시장 경쟁 심화 ·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악영향 우려 · 장기적으로 정치체제 변화 가능성 상존 · 남중국해 문제로 대중 관계 악화 |

자료: BMI(2016), pp. 11-12와 KOTRA(2015a)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시장 친화적 개혁·개방 의지는 외국 인 기업에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WTO 가입으로 인한 제도개선과 다수의 FTA 체결은 베트남의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해 왔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해 동안 한·베 FTA, 베·EU FTA, TPP가 체결되었고, AEC가 출범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외국인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베트남은 사상최대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정치경제를 둘러싼 강점과 기회 요소는 지속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약점 및 위기 요소들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한층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베트남이 보유한 강점과 기회 요인을 활용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 스스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우려할 사항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 감소가 확대된다면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메리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베트남 내수시장을 두고 우리기업과 해외진출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품 차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CSR 또는 CSV 활동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조한 유통망 확충을 온라인 시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황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Moi Moi)를 계기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에 미국이 對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외여건이 개선되었고 대규모 FDI 유입은 본격적인 베트남의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1990년대 베트남에 대한 FDI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기업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베트남은 주로 저임금을 활용한 우회수출기로서 의미를 지녔다.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FDI가 급증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산업구조 변환이 시작되었다. 이후 투자 업종 또한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점차 기계, 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FDI 유입이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변환했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이 베트남의 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베트남의 산업고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계, 에너지, 컴퓨터, 휴대전화 등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육성에 FDI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¹⁸⁾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국내기업에 수직적·수평적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주도했다.¹⁹⁾

18) Nam Hoai Trinh and Quynh Anh Mai Nguyen(2015), p. 7.

베트남 진출 외국인기업은 2015년 기준 베트남 전체 교역에서 수출의 약 71%, 수입의 약 60%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가 되었다.²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화를 주도해왔으며,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IT 부문은 물론 베트남 산업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부품·소재 산업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으나,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최근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계, 항공, IT, 정유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15년 TPP 체결로 일본,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본, 미국 기업들의 입지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 한국, 일본,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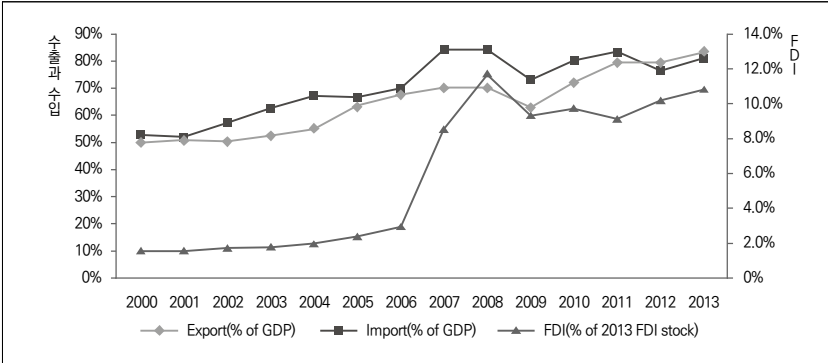
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베트남으로 FDI 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그 추세가 변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FDI 유입액 규모가 적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FDI 유입액 규모가 급증하였다. 2014년에는 약 200억 달러 이상의 FDI가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FDI 유입 추이가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그림 3-1). 또한 2008년 FDI 유입이 급증한 이후 2009년부터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선행연구처럼

19) Vu(2015), p. 50, 재인용.

20)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

그림 3-1. 베트남 FDI 유입 추이



자료: WDI(검색일: 2016. 3. 21); UNCTAD(검색일: 2016. 3. 2).

FDI 유입과 베트남 수출 간에 보완관계가 확인된다.²¹⁾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에 투자가 몰리기 이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선점자의 이익(first move advantage)을 누렸다. 초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섬유봉제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지만 최근 삼성, LG 등 전기전자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총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전자부품과 금속제품, 부동산, 섬유봉제가 전체 누적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표 3-1). 최근 다각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각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어느 정도 다각화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한다면 특정 부문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Giroud(2007); Xuan and Xing(2008); Anwar and Nguyen(2011).

표 3-1. 한국의 부문별 베트남 FDI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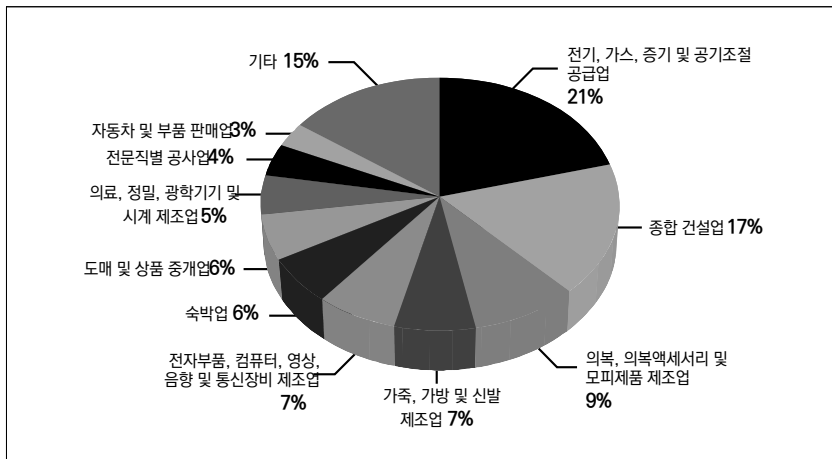
| 부문 | 2006 | 2010 | 2014 | 2015 | 전체 |
|-----------|-------|-------|-------|-------|-------|
| 농업 | 0.15 | 0.00 | 2.58 | 0.00 | 0.13 |
| 광업 | 0.28 | 0.00 | 0.00 | 0.00 | 0.35 |
| 식품가공 | 0.09 | 0.76 | 13.92 | 6.83 | 1.91 |
| 섬유봉제 | 0.31 | 0.11 | 1.49 | 12.91 | 1.65 |
| 목재가공 | 0.10 | 6.43 | 0.00 | 0.00 | 6.11 |
| 석탄석유정제 | 0.00 | 0.00 | 0.00 | 0.00 | 0.02 |
| 화학약품플라스틱 | 0.84 | 0.09 | 0.77 | 5.01 | 1.75 |
| 비금속광물 | 0.07 | 0.23 | 0.38 | 0.00 | 1.38 |
| 금속과 금속제품 | 0.08 | 0.59 | 11.37 | 2.41 | 2.25 |
| 전자부품 | 0.24 | 0.03 | 0.00 | 0.53 | 0.96 |
| 전자장비 | 0.12 | 0.12 | 0.00 | 0.66 | 0.31 |
| 기계 | 0.00 | 0.02 | 0.00 | 0.44 | 0.06 |
| 자동차 | 0.00 | 0.00 | 12.10 | 0.00 | 0.3 |
| 가구 | 0.03 | 0.06 | 0.87 | 0.00 | 0.26 |
| 기타제조업 | 0.32 | 0.11 | 1.05 | 4.38 | 1.67 |
| 설치유지 | 0.01 | 0.00 | 0.52 | 0.13 | 1.23 |
| 전기가스상수도공급 | 0.00 | 38.21 | 22.73 | 0.00 | 8.74 |
| 하수도 | 0.00 | 0.00 | 0.00 | 0.00 | 0.70 |
| 건설 | 0.00 | 0.31 | 0.87 | 10.98 | 0.43 |
| 상업 | 0.04 | 0.38 | 3.31 | 1.66 | 0.67 |
| 운송 | 3.32 | 0.00 | 0.17 | 1.01 | 2.07 |
| 호텔요식 | 93.82 | 0.06 | 0.26 | 0.02 | 50.14 |
| 정보통신 | 0.03 | 0.13 | 3.17 | 0.22 | 0.59 |
| 금융 | 0.00 | 0.00 | 0.00 | 0.00 | 0.05 |
| 부동산 | 0.00 | 44.59 | 0.00 | 19.66 | 12.99 |
| 사업지원 | 0.01 | 0.28 | 0.90 | 0.34 | 0.23 |
| R&D | 0.10 | 0.06 | 20.98 | 30.68 | 1.12 |
| 교육 | 0.00 | 7.41 | 0.02 | 0.00 | 1.72 |
| 건강 | 0.00 | 0.01 | 0.00 | 0.09 | 0.04 |
| 기타서비스 | 0.00 | 0.00 | 2.54 | 2.06 | 0.17 |
| 전체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ran(CIEM)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4년 베트남 투자금액은 15억 9천만 달러 규모로 단일 국가 기준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에 10억 1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대비 약 63.5%를 차지한다.²²⁾ 최근에 투자가 집중된 분야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부문이다(그림 3-2). 동 부문에 대해 각각 2억 8천만 달러, 1억 1천만 달러, 1억 1천만 달러, 8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부문에 대해 2억 3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2014년 총 투자액 대비 15%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산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에 4억 7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총 투자액의 31%를 차지했다.

그림 3-2. 2014년 한국의 對베트남 부문별 FDI 현황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9>, 검색일: 2016. 3.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2010~14년을 종합하면, 소분류 기준 479개 업종에, 55억 달러 이상의 투자(투자 기준)가 이루어졌다.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그 외 기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제철업, 기타 부동산업, 그 외 기타 의류봉제업에서 큰 규모의 투자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9>, 검색일: 2016. 3. 5).

가 발생했다(표 3-2). 석유공사의 베트남 동해 투자로 인해 2010년 이후 8억 6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관련 업종의 진출과 함께 가전분야 진출도 추진되고 있다. 제철업은 포스코와 동부제철이 직접투자를 추진 중이다.

표 3-2. 對베트남 20대 주요 투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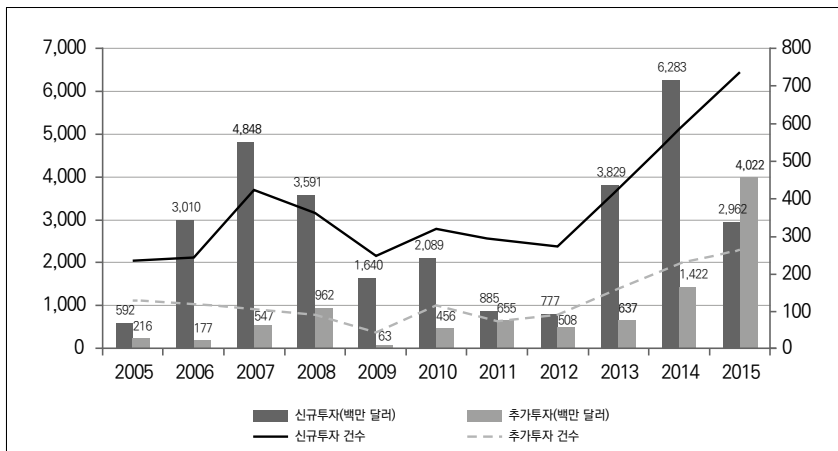
| 순위 | 투자분야(소분류) | 투자금액 (2010~14) | 비중 |
|----|--------------------------|-------------------|-------|
| 1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864,996 | 15.54 |
| 2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12,021 | 5.60 |
| 3 | 제철업 | 263,811 | 4.74 |
| 4 | 기타 부동산 개발 | 260,085 | 4.67 |
| 5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150,642 | 2.71 |
| 6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146,000 | 2.62 |
| 7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145,521 | 2.61 |
| 8 | 화력 발전업 | 125,215 | 2.25 |
| 9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109,500 | 1.97 |
| 10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 91,357 | 1.64 |
| 11 | 휴양콘도 운영업 | 87,350 | 1.57 |
| 12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85,291 | 1.53 |
| 13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82,960 | 1.49 |
| 14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66,823 | 1.20 |
| 15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 66,630 | 1.20 |
| 16 | 국내은행 | 65,800 | 1.18 |
| 17 | 편조의복 제조업 | 61,102 | 1.10 |
| 18 | 여자용 정장 제조업 | 58,677 | 1.05 |
| 19 | 축전기 제조업 | 58,050 | 1.04 |
| 20 | 기타 신발 제조업 | 57,342 | 1.03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cisas.html?type=09>, 검색일: 2016. 3. 5)를 활용해 저자 작성.

베트남에 대한 한국투자의 성격은 신규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그림 3-3).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추가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우리기업이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베트남에 대해 2015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56건 이루어졌다. 대표적 사례로는 2006년 포스코제철의 BRVT(11.3억 달러), 2007년 경남개발(5억 달러), 효성섬유(3.68억 달러), 2008년 인평(6.6억 달러), 2010년 포스코제철(7억 달러), 2013년 LG전자 하이퐁(15억 달러), 삼성전자 타이응웬(12.3억 달러), 2014년 삼성전자 타이응웬(30억 달러), 삼성디스플레이 박닌(10억 달러), 2015년 포스코제철(11.3억 달러), 삼성디스플레이 박닌(30억 달러) 등이다. 사례가 보여주듯이 2009년 이전의 對베트남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삼성의 투자를 필두로 해서 2013년이 지나면 전기·전자부문이 투자의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추가투자도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PP의 원산지 규정을 고려한 투자로 태광과 효성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3-3. 한국의 對베트남 FDI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 저자 작성.

이러한 특징은 [그림 3-3]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투자건수는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투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의 베트남 투자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그린필드형 투자건수와 함께 추가투자가 나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 두산, LG, 포스코, CJ 등의 대규모 추가투자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왔다. 2015년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전기전자, 부동산, 도소매업, 관광업, 식품가공업, 유통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나타난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베트남 투자의 성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되어, 다국적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둘째, 최근 초도투자뿐만 아니라 추가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최근 투자분야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교하면 여전히 그 집중도가 높다. 넷째, 대기업의 투자가 한국계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이끌었다.

나. 일본의 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최근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1990년대에는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했지만, 2000년대에는 기술·자본집약산업으로 중심을 이동하였다. 일본의 투자 확대는 베트남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기반 형성에 기여해왔다. 특히 2005년 ASEAN·일본 포괄적경제협력협정(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2008년 발효), 2008년 베트남-일본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2009년 발효) 등 연이은 자유화조치를 통해서 베트남은 일본기업의 베트남 투자여건과 양자 간 경

제협력 관계를 개선해왔다. 특히 베트남·일본 EPA는 상품, 투자, 서비스, 인력 이동, 지적권, 경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양자간 추가 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일본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한편 2015년 TPP 타결로 베트남-일본 양국간에 교역, 투자,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3-3]은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를 부문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3-3]이 나타내듯이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자본집약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총 누적투자의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건설업 및 상업, 부동산으로 투자비중이 늘고 있다.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과 2009년 일-베트남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소비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와 같은 비중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FTA, TPP 등을 통한 자유화조치 이외에도 일본과 베트남은 2003년부터 ‘베트남-일본 공동 이니셔티브(Vietnam-Japan Joint Initiative)’를 통해서 양자간 주요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추진해왔다. 동 회의체에는 베트남의 경우 주로 주요 정부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일본은 정부부처 대표단은 물론 일본 기업 및 재계를 대표하는 Keidanren(일본 경단련), JETRO, JBIC, JICA, JBAV(Japan Business Association in Vietnam) 등도 포함된다. 회차별로(주로 2년 단위) 주요 부문별 액션플랜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채택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액션플랜 이행을 위해서 베트남과 일본 양측 대표로 구성된 베트남-일본 무역투자작업반(Vietnam-Japan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3-3. 일본의 부문별 對베트남 FDI

(단위 : %)

| 부문 | 2006 | 2010 | 2014 | 2015 | 전체 |
|-----------|-------|-------|-------|-------|-------|
| 농업 | 0.52 | 0.05 | 0.36 | 6.24 | 0.53 |
| 광업 | 0.00 | 0.00 | 0.00 | 0.00 | 0.17 |
| 식품가공 | 0.38 | 0.82 | 2.00 | 1.15 | 1.98 |
| 섬유봉제 | 2.03 | 0.65 | 2.63 | 4.97 | 1.44 |
| 목재가공 | 2.42 | 0.02 | 2.10 | 0.46 | 0.81 |
| 석탄석유정제 | 0.19 | 0.00 | 0.01 | 0.00 | 30.59 |
| 화학약품플라스틱 | 9.81 | 3.46 | 14.73 | 4.66 | 10.23 |
| 비금속광물 | 0.69 | 0.60 | 6.72 | 0.11 | 2.07 |
| 금속과 금속제품 | 9.87 | 61.95 | 10.46 | 8.44 | 10.60 |
| 전자부품 | 42.95 | 6.78 | 13.42 | 8.73 | 10.01 |
| 전자장비 | 4.60 | 8.59 | 2.81 | 0.69 | 2.81 |
| 기계 | 2.33 | 4.04 | 0.62 | 1.61 | 2.48 |
| 자동차 | 7.84 | 0.61 | 10.49 | 1.03 | 3.64 |
| 가구 | 0.00 | 0.00 | 0.65 | 0.10 | 0.16 |
| 기타제조업 | 2.04 | 1.07 | 1.77 | 7.58 | 2.81 |
| 설치유지 | 0.05 | 0.37 | 0.28 | 0.02 | 0.29 |
| 전기가스상수도공급 | 0.09 | 0.00 | 0.06 | 0.00 | 0.36 |
| 하수도 | 0.00 | 0.00 | 0.96 | 0.05 | 0.12 |
| 건설 | 3.95 | 2.22 | 1.70 | 27.21 | 3.36 |
| 상업 | 3.09 | 6.02 | 6.04 | 16.37 | 3.61 |
| 운송 | 0.84 | 0.83 | 5.98 | 0.80 | 0.92 |
| 호텔요식 | 0.24 | 0.05 | 0.22 | 0.68 | 0.78 |
| 정보통신 | 0.38 | 0.12 | 1.30 | 1.12 | 2.53 |
| 금융 | 0.00 | 0.79 | 0.00 | 0.00 | 0.13 |
| 부동산 | 5.50 | 0.00 | 9.53 | 5.80 | 6.12 |
| 사업지원 | 0.07 | 0.57 | 3.45 | 1.41 | 0.81 |
| R&D | 0.11 | 0.31 | 0.01 | 0.46 | 0.11 |
| 관광 | 0.00 | 0.00 | 0.00 | 0.01 | 0.00 |
| 교육 | 0.01 | 0.00 | 1.27 | 0.11 | 0.32 |
| 건강 | 0.00 | 0.03 | 0.19 | 0.04 | 0.03 |
| 기타서비스 | 0.00 | 0.05 | 0.25 | 0.13 | 0.16 |
| 전체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ran(CIEM)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베트남은 EPA를 통한 자유화조치를 활용한 일본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이외에도 일본 전용공단을 조성·공급하면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해왔다(표 3-4). 베트남 정부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기업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수요가 높고 진출 희망기업 다수가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베트남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²³⁾ 또한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일본인들의 특성상 일본계 기업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3-4. 베트남의 일본 전용공단 설립 사례

| 공단명 | 소재지 | 면적(Ha) |
|--|------------------|--------|
| Phu My 3 | Ba Ria-Vung Tau | 999 |
| Da Bac | Ba Ria-Vung Tau | 75 |
| Long Duc | Dong Nai | 282 |
| Song Khe-Noi Hoang | Bac Giang | 26.95 |
| HANSSIP | Hanoi | 600 |
| Hiep Phuoc 2 IP | Ho Chi Minh City | n/a |
| Long Hau-Hoa Binh | Long An | 125 |
| My Trung | Nam Dinh | 150.6 |
| Vietnam-Japan Supporting Industries IP | Bac Ninh | 16 |

자료: 권경덕(2013, p. 1, 재인용).

베트남 정부와 공단 개발업체는 이러한 일본기업의 전용공단 선호 현상을 고려해 일본기업 전용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지자체도 일본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례로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산업공단지 내 일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부품소재산업 전용공단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호치민시 당국도 부품소재산업 전용공단 프로젝트는 일본계 중소기업의 유치를 가장 큰 목적으로

23) 권경덕(2013), p. 1.

삼고 있다고 밝혔다.²⁴⁾ 일본에 의해 원전건설이 추진 중인 Ninh Tuan 지역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다수의 일본계 기업이 투자·진출하리라 예상하고 심해항이 있는 인근의 Ca Na 지역에 일본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공단 부지를 마련했다.

다.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과 특징

앞서 일본이 1990년대부터 직접투자를 통해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에 있어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베트남 정부는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용공단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여건 개선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미국이 對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2001년 대미무역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약 40% 수준에 달하는 대미 관세율 때문에 베트남 국내 기업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정상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가 수립되면서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이 평균 3% 내외로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국내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²⁵⁾ 그럼에도 매년 갱신 여부를 심사받는 NTR 상태에서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베트남 상품의 미국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물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기업도 대미 수출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했었다.²⁶⁾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2006년 항구적정상교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수립을 계기로 안정적인 대미 수출환경을 보장받았다. 또한

24) 권경택(2013), p. 2.

25) 도정민(2001), p. 1.

26) 김석진(2007), pp. 47~48.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의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베트남은 투자여건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수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5년에 체결된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베트남이 주목받으면서 TPP 가입국은 물론 비가입국의 기업도 베트남 투자진출을 늘리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베트남 정상급 인사 중 최초로 응웬푸쑹 서기장이 미국을 공식 방문해 TPP 체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최대수출 시장인 미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아시아 균형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2016년 1월에 베트남 정상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을 방문했고, 지난 5월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베트남을 답방했다.

미국의 베트남 투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자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표 3-5]는 미국의 부문별 베트남 FDI를 나타낸다. 2006년에는 호텔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10년에 들어서면서 부동산과 전기·가스·상수도 공급과 같은 기초인프라 사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 2014년과 15년에는 투자부문이 상대적으로 다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섬유봉제업의 투자가 예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TPP 서명에 따른 효과로 여겨진다. 또한 부동산과 R&D 부문의 투자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베트남 투자는 여전히 호텔 요식업에 5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제조업과 연구개발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표 3-5. 미국의 부문별 베트남 FDI

(단위 : %)

| 부문 | 2006 | 2010 | 2014 | 2015 | 전체 |
|-----------|-------|-------|-------|-------|-------|
| 농업 | 0.15 | 0.00 | 2.58 | 0.00 | 0.13 |
| 광업 | 0.28 | 0.00 | 0.00 | 0.00 | 0.35 |
| 식품가공 | 0.09 | 0.76 | 13.92 | 6.83 | 1.91 |
| 섬유봉제 | 0.31 | 0.11 | 1.49 | 12.91 | 1.65 |
| 가구가공 | 0.10 | 6.43 | 0.00 | 0.00 | 6.11 |
| 석탄석유정제 | 0.00 | 0.00 | 0.00 | 0.00 | 0.02 |
| 화학약품플라스틱 | 0.84 | 0.09 | 0.77 | 5.01 | 1.75 |
| 비철광물 | 0.07 | 0.23 | 0.38 | 0.00 | 1.38 |
| 철광물 | 0.08 | 0.59 | 11.37 | 2.41 | 2.25 |
| 전기 | 0.24 | 0.03 | 0.00 | 0.53 | 0.96 |
| 전자제품 | 0.12 | 0.12 | 0.00 | 0.66 | 0.31 |
| 기계 | 0.00 | 0.02 | 0.00 | 0.44 | 0.06 |
| 자동차 | 0.00 | 0.00 | 12.10 | 0.00 | 0.3 |
| 가공 | 0.03 | 0.06 | 0.87 | 0.00 | 0.26 |
| 기타제조업 | 0.32 | 0.11 | 1.05 | 4.38 | 1.67 |
| 설치유지 | 0.01 | 0.00 | 0.52 | 0.13 | 1.23 |
| 전기가스상수도공급 | 0.00 | 38.21 | 22.73 | 0.00 | 8.74 |
| 하수도 | 0.00 | 0.00 | 0.00 | 0.00 | 0.70 |
| 건설 | 0.00 | 0.31 | 0.87 | 10.98 | 0.43 |
| 상업 | 0.04 | 0.38 | 3.31 | 1.66 | 0.67 |
| 운송 | 3.32 | 0.00 | 0.17 | 1.01 | 2.07 |
| 호텔요식 | 93.82 | 0.06 | 0.26 | 0.02 | 50.14 |
| 정보통신 | 0.03 | 0.13 | 3.17 | 0.22 | 0.59 |
| 금융 | 0.00 | ,0 | 0.00 | 0.00 | 0.05 |
| 부동산 | 0.00 | 44.59 | 0.00 | 19.66 | 12.99 |
| 사업지원 | 0.01 | 0.28 | 0.90 | 0.34 | 0.23 |
| R&D | 0.10 | 0.06 | 20.98 | 30.68 | 1.12 |
| 교육 | 0.00 | 7.41 | 0.02 | 0.00 | 1.72 |
| 건강 | 0.00 | 0.01 | 0.00 | 0.09 | 0.04 |
| 기타서비스 | 0.00 | 0.00 | 2.54 | 2.06 | 0.17 |
| 전체 | 100 | 100 | 100 | 100 | 100 |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일본은 베트남을 애초 소비 시장으로 치부했으나 현재 일본의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수출시장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투자 다각화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표 3-6. 미국,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 특징과 베트남 정부의 정책대응

| 구분 | 일본 | 미국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로 산업화·경제성장 기반 · 생산네트워크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시장 ·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호텔·부동산 중심 진출 · 2015년 R&D분야에 집중 |
| 정책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A를 통한 자유화 조치 · 베-일 공동 이니셔티브 · 투자여건 개선(일본 전용공단) · TPP: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적무역관계정상화(PNTR) · TPP: 대미 수출 확대 · 2015년 최초 정상급 방미 · 2016년 양자간 정상 방문 |

자료: 저자 작성.

3. 베트남의 대응

앞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 베트남·EU 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베트남·유라시아관세연합 FTA 등 공격적인 자유화조치는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 전파에 기여하는 부문의 투자를 선호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사업환경 개선과 하이테크 인증기업제도를 두었다.²⁷⁾

외국인투자기업은 2015년 기준 총수출의 71%, 총수입의 61%를 차지하며

27) 베트남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나 까다로운 심사 및 기준으로 유명무실하다. 본 인증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세, 9년간 50% 감세, 기본 법인세율 10%, 수입세/부가세 0%이다(KOTRA 2015b, p. 17).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²⁸⁾ 베트남 GDP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영향력은 작다고 할 수 없다.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술자의 부족과 법률 인프라의 미비는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정규적인 미팅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사업포럼(Vietnam Business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논의내용을 출판해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된 사례로 2014년에 통과된 신투자법 도입을 들 수 있다. 과거 투자법에서는 투자허용부문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으로 나타냈지만, 신투자법은 투자제한업종(negative list)을 제시해 외국기업의 투자기회를 넓혔다. 또한 267개의 조건부투자허용부문을 명확히 밝혀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신투자법과 기업법은 M&A 과정을 단순·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어 M&A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 정부가 일본기업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본 전용공단을 조성했다는 점도 놀랄 만한 변화이다. 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유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무역거래가 중심이 되는 미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통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 경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결국 베트남의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투자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선별적이다. 신

28)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

29) 현지조사에서 만난 기획투자부(MPI) 박사는 “2015년 초에 베트남 총리가 세관 수속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곽성일 2016).

투자법은 FDI 프로젝트가 베트남의 국가개발계획에 부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기업 입장에서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식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각의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도 달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투자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사업환경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려는 의지는 명확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1.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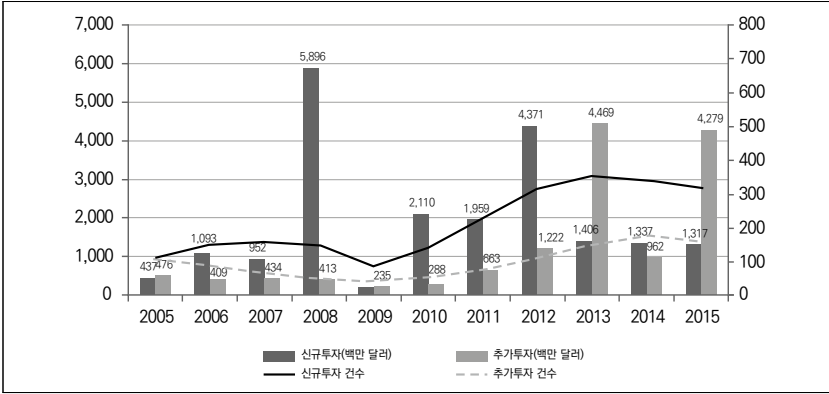
가. 일본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일본은 1986년 프라자합의를 계기로 동남아에 폭넓은 생산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진출은 1988년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 발효시기에 맞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대규모 진출은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한국, 대만 등과 유사하게 199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기계, 자동차,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일본의 대동남아 투자는 주로 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태국의 임금상승, 2011년 대홍수 피해 등 리스크를 감안해 '태국+1'의 형태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일본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투자규모가 급증했는데 이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의 고도성장과 시장 잠재력을 겨냥한 투자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4-1).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는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재반등했다. 일본의 對베트남 투자는 주로 신규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추가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해 2013년과 2015년에는 추가투자가 신규투자를 넘어섰다. 반면 추가투자의 건수가 신규투자에 비해서 크게 적은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가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확인한 후 추가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그림 4-1. 일본의 對베트남 FDI 추이(2005~15년)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해된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일본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은 기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빠르게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규모 투자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IT, 자동차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서비스 산업과 철강, 시멘트 등 소재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투자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수요 증가를 감안해 정유,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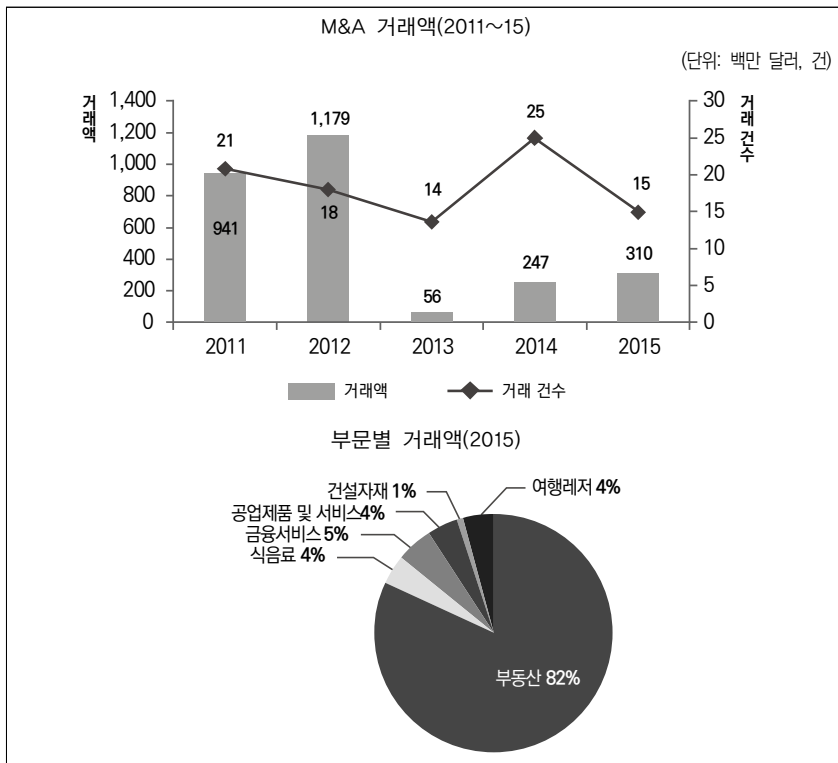
글상자 4-1. 최근 일본기업들의 對베트남 주요 투자 사례

- 2008년 IT HCM(6.1억 달러), 현대(4.1억 달러)
- 2010년 Kobelco Steel(10억 달러)
- 2012년 Tokyu 부동산(12억 달러), Bridgestone Tire(5.7억 달러)
- 2013년 응아이 손(Nghi Son) 정유소(28억 달러 추가투자), Bridgestone Tire(6.5억 달러 추가투자)
- 2015년 Nippon steel(11.5억 달러), 응아이 손(Nghi Son) 시멘트(6.2억 달러)

자료: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일본은 또한 2011년 이후 베트남의 M&A 시장에 가장 큰 규모로 진출했다(그림 4-2).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제한된 부문인 금융과 부동산시장에 M&A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다. 일본기업은 다른 국가와 달리 중소기업의 M&A 거래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이 총 62개의 거래 가운데 12건을 획득해 약 20%의 M&A 사업을 성공했지만, 총 거래액은 전체 거래액의 5.5% 밖에 되지 않는다.³⁰⁾ 이 수치는 일본기업이 대규모 거래보다는 중소기업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것은 방증한다.

그림 4-2. 일본의 對베트남 M&A



자료: StoxPlus(2016), p. 43.

30) StoxPlus(2016), p. 43.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법령체계,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 다방면에 걸쳐서 근본적이고 면밀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일반적으로 외국인기업들이 투자허가, 생산시설 건설 등 투자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데 비해서 일본기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에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성향이 강하다.

일본기업과 정부의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 방식은 ‘베트남·일본 이니셔티브(Vietnam-Japan Joint Initiative)’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인 양자간 논의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은 주로 FTA, EPA 등과 같은 자유화 협정이나 별도의 투자협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일본은 2003년부터 베트남·일본 공동이니셔티브를 설립해 법령, 정책, 세무, 통관, 지적권, 환경, 금융, 서비스, 인프라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정례화된 정책대화 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이러한 포괄적인 형태의 양자간 대화·논의 체계는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일본기업의 이해가 베트남의 정책입안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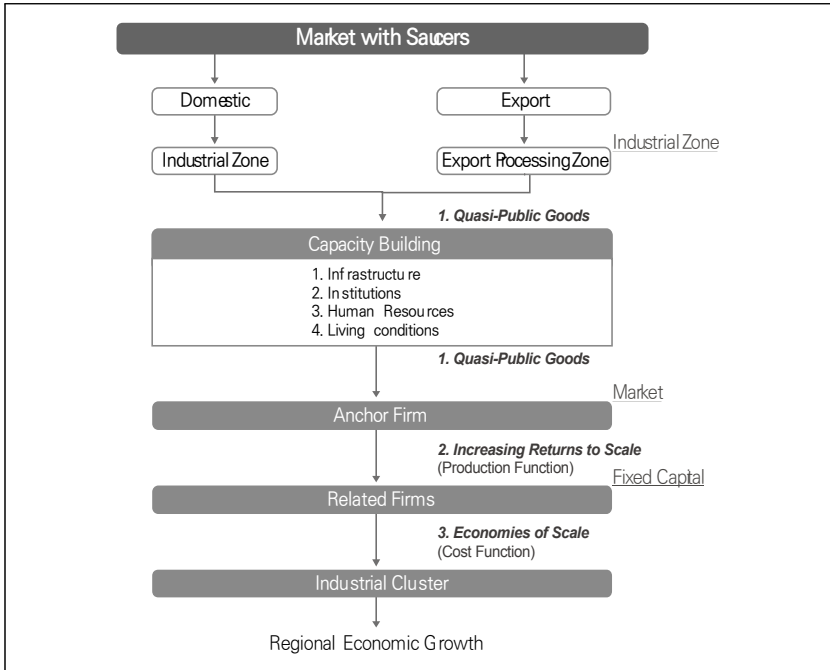
1) 앵커기업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일본기업은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도 동남아 일대에 이미 대규모 생산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은 베트남 진출 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신규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형태를 보인다. 리스크 최소화뿐만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31) 홍석균(2013), p. 1.

투자진출 특성은 크게 ① 앵커기업(Anchor Firm)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그림 4-3) ② 현지 파트너십 활용(OEM, Licensing, Joint Venture) ③ 기존진출 일본업체 활용(Line Gari, Nokisak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3. 앵커기업을 활용한 클러스터형 진출전략 흐름도(Flow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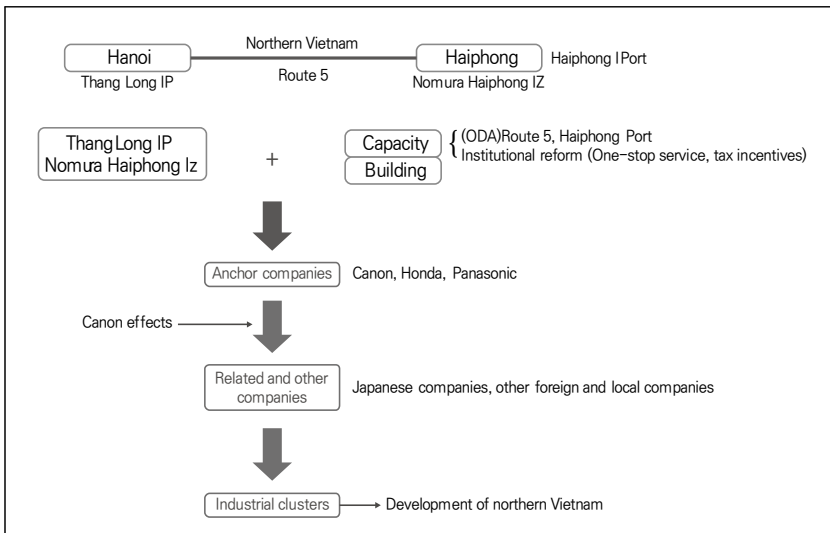


자료: Kuchiki(2005), p. 38 인용.

우선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형 진출은 해당 업종의 핵심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신규진출을 추진하면서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협력사가 동반 혹은 추가 진출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형태이다. 일본기업의 앵커기업 중심 클러스터화 전략은 ① 공단구성, 인프라·역량강화 ② 앵커기업 진출 ③ 협력업체 진출 등의 단계를 따른다. 첫째, 공단구성을 통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 마련 단계로 향후 입주 기업들이 활용할 일종의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가 확충되는 단계이다. 둘째, 앵커기업 진출 단계로

향후 클러스터의 공급망 핵심을 구성할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진출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 일종의 규모 수익의 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한다. 셋째, 이들 앵커기업의 주요 협력사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외 기업이 공급망 구성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이들 앵커기업 진출에 이은 협력사 진출로 해당 국가 혹은 지역에 일종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마련되면서 중국에는 지역경제 개발 및 발전으로 이어진다.³²⁾

그림 4-4. 일본기업들의 앵커기업 중심 클러스터화 진출전략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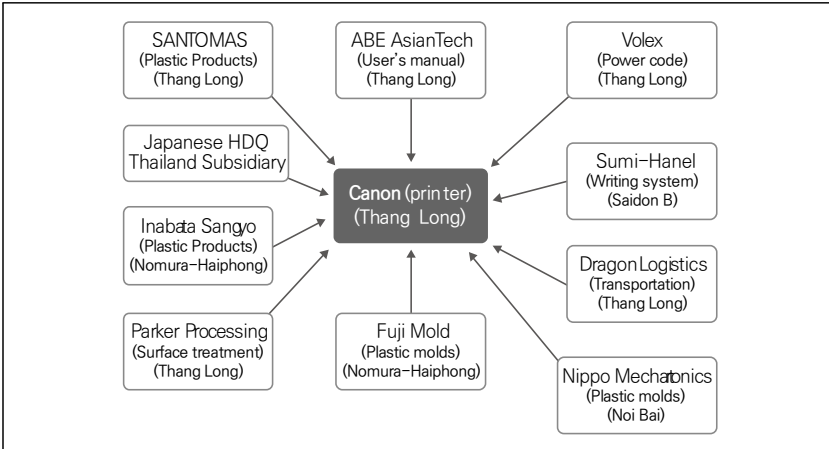
자료: Kuchiki(2007), p. 135 인용.

이처럼 일본의 공단을 활용한 앵커기업 중심의 대표적인 투자진출 사례는 Canon, Honda, Panasonic 등의 베트남 북부 지역 진출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하노이 소재 Thang Long 공단(TLIP: Thang Long Industrial Part), 하이퐁 소재 Nomura Haiphong 공단에 입주했다(그림 4-4). 하노이-하이퐁을 연결하는 5번 고속도로와 하이퐁 항구 등의 양호한 물류여건과, 베트남 측

32) Kuchiki(2005), pp. 2-3.

의 인프라, 제도, 인적자원, 삶의 질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앵커기업의 투자 진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³³⁾

그림 4-5. Canon社의 클러스터 구성 사례



자료: Kuchiki(2009), p. 35에서 발췌·인용.

일본기업들의 베트남에서의 클러스터화 진출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Canon의 TLIP 투자진출을 들 수 있다(그림 4-5). 캐논은 2001년 베트남에 진출해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2002년부터 TLIP 및 하이퐁 공단을 중심으로 캐논의 협력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까지 약 100여 개 일본계 협력사와 20여 개 베트남 현지기업이 Canon을 중심으로 TLIP와 하이퐁 공단에 입주하면서 대규모 공급망을 구성했고 결국 대형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삼성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베트남 박닝성에 자리를 잡았고 주변에 1차 및 2차 벤더 생산업체가 삼성을 따라 입지해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앵커기업의 경영 상태에 다른 협력업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투자형태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33) Kuchiki(2005), pp. 13-14.

2) 소규모 진출 후 단계적 확대: 소규모 공장임대, Line Gari, Nokisaki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구성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전략은 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지향하는 전략이다. 반면 일본 중소기업은 단시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투자성과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소 투자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저비용(Low-Cost), 저리스크(Low-Risk)를 지향하는 단계적인 투자전략을 선호한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의 저임금, 저비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전면 이전해 성과를 내는 성향이 강한 것과는 달리, 일본 중소기업은 OEM, Licensing 등의 형태로 현지파트너에게 생산을 일임하거나 단계적으로 현지파트너 혹은 유관기업을 먼저 활용해 현지사업 진행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한 이후에 현지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전략을 취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도 전략적인 FDI 형태로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이전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본기업은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기보다는 집단적 FDI(Collective FDI)의 형태를 선호한다. 이는 다수의 일본기업이 한 지역에 공동으로 투자진출해 공간, 비용, 정보, 서비스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본 중소기업의 이 같은 성향을 고려해 다수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개별기업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조정기능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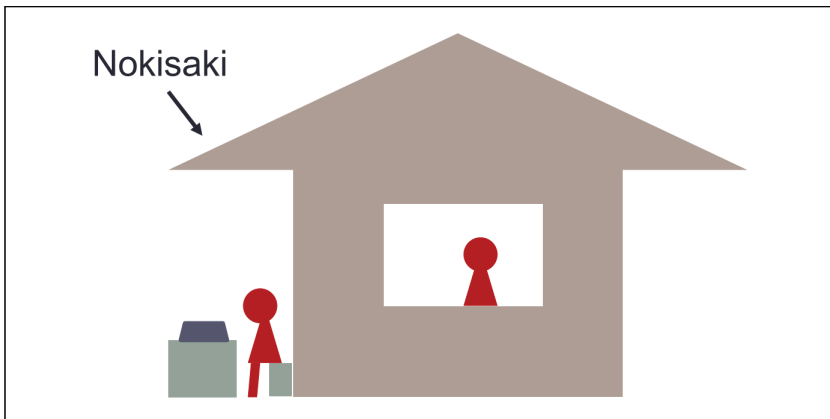
일본 중소기업들의 단계적 진출전략은 소규모 공장임차, Line Gari(라인임차), Nokisaki(軒先, 자투리땅 임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모두 초기 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한 형태이다(그림 4-6).³⁴⁾ 실험적으로 소규모로 진출해 일정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시장 경험을 쌓는 동시에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전략적 분석 기간을 가지는 형태이다. 이후 현지사업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투자 철회 혹은 확대를 결정한다. 일단 소규모 공장임차의 경우 약

34) Nokisaki는 일본어로 처마 끝이라는 의미이다.

1,000m²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구축해 실험적으로 현지생산을 시도하는 형태이다. Line Gari는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기존 일본 기업의 생산라인 일부를 임차해 시험생산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기존 생산 라인에 구축된 장비, 기술,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okisaki는 기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임차해서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형태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시 일종의 스타트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라인임차는 경우에 따라서 임대기업이 생산을 확장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Nokisaki는 임대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공간에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임대기업의 생산 활동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우려가 적다. 또한 일정 수준의 임대료는 임대기업의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Nokisaki로 임대를 주는 임대기업은 임차 기업에 현지 기업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같은 노하우 전수는 신규진출 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 4-6. Nokisaki 개념



자료: Isumi & Ohono, K(2015), p. 13 발췌·인용.

이상에서 논의된 일본기업의 베트남 진출 유형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일본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유형과 장단점

| 진출형태 | 장점 | 단점 |
|--------------------------|-------------------------------|----------------|
| 앵커기업 중심 클러스터형 진출 | 클러스터화 → 규모의 경제 | 앵커기업 공급망 의존도高 |
| 집단적 FDI (Collective FDI) | 인프라, 정보, 비용 공유 | 기업 간 연계 어려움 |
| Joint Venture | 현지파트너 노하우·역량 | 파트너 선택 리스크 |
| 공장임대 | 자유로운 생산 활동 | 확장 시 이종투자 우려 |
| Line Gari | 공장 건설비용 부담 無 | 생산라인 임차 유지 불안정 |
| Nokisaki | 토지 비용 부담 小 기진출 임대기업 노하우 공유 | 확장 시 이종투자 우려 |

자료: 저자 작성.

3) ODA 활용 인프라 개선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ODA 공여국으로 베트남의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표 4-2, 표 4-3, 표 4-4). 일본의 ODA는 크게 무상원조(Grant), 유상원조(Loan),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으로 구분되며 2013년까지 부문별 누적 지원액이 유상원조 2조 1,920억 엔, 무상원조 8,340억 엔, 기술협력 1,241억 엔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일본의 대규모 저리 유상원조는 베트남의 부족한 개발재원 해소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본의 유상원조는 전력·가스, 교통 등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은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적자원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일본의 對베트남 유상원조가 집중된 인프라 부문 개발사업의 경우 베트남의 산업기반 확충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일본기업들이 유상원조 인프라 개발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볼 수 있다. 베트남 북부의 주요 일본 앵커기업 중심 산업 클러스터가 일본기업들의 대표적인 ODA 수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Canon, Honda, Panasonic 등 주요 일본기업들이 베트남 북부 하노이, 하이퐁 인근에 진출을 계획하던 당시에는 항만, 육상교통 인프라가 극히 열악했다. 하이퐁 항구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항구였으나 협소한 인프라로 인해서 국제항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하노이와 하이퐁을 잇는 5번 고속도로 또한 편도 1차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유상원조 자금을 활용해 베트남 교통부와 협의하여 하이퐁항 개선(Hai Phong Port Rehabilitation Project I~II 약 172억 엔), 5번 고속도로 개선(National Highway No.5 Improvement Project I~III, 약 209억 엔) 등을 통해서 교통·물류 인프라를 대폭 증설해 베트남 북부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표 4-2. 일본의 연도별 베트남 유상원조 분야별 지원 추이

| 유상원조 분야 | (단위: 억 엔) | | | | | | | | | | | | | | | | | | | |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유상원조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전력·가스 | 1,995.0 | 0.0 | 290.3 | 155.9 | 216.9 | 558.5 | 44.3 | 294.2 | 303.1 | 109.1 | 0.0 | 207.4 | 298.5 | 403.3 | 62.2 | 75.2 | 5,013.8 | 0.0 | 0.0 | 0.0 |
| 교통 | 670.9 | 77.4 | 296.6 | 463.7 | 598.7 | 332.4 | 587.2 | 117.9 | 201.7 | 679.0 | 274.1 | 391.8 | 494.0 | 326.1 | 289.6 | 388.9 | 1,574.1 | 912.7 | 1,330.8 | 1,330.8 |
| 통신 | 20.3 | 20.0 | 119.3 | 0.0 | 214.1 | 0.0 | 0.0 | 195.0 | 0.0 | 0.0 | 0.0 | 36.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치수·홍수예방 | 0.0 | 0.0 | 0.0 | 0.0 | 0.0 | 4.4 | 0.0 | 0.0 | 0.0 | 0.0 | 48.7 | 0.0 | 0.0 | 0.0 | 0.0 | 0.0 | 0.0 | 191.2 | 0.0 | 0.0 |
| 농림수산업 | 4.3 | 0.0 | 0.0 | 0.0 | 105.6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77.0 | 0.0 | 0.0 | 187.0 | 0.0 | 0.0 | 0.0 |
| 광업·제조업 | 40.0 | 8.8 | 0.0 | 0.0 | 0.0 | 0.0 | 61.5 | 0.0 | 117.2 | 0.0 | 0.0 | 230.7 | 0.0 | 152.2 | 0.0 | 0.0 | 610.3 | 0.0 | 0.0 | 0.0 |
| 사회서비스 | 587.8 | 0.0 | 82.0 | 0.0 | 157.9 | 33.1 | 15.2 | 266.2 | 77.7 | 340.5 | 506.0 | 179.5 | 43.3 | 360.7 | 322.0 | 0.0 | 2,971.8 | 0.0 | 0.0 | 0.0 |
| Commodity Loan | 628.0 | 200.0 | 0.0 | 0.0 | 0.0 | 0.0 | 20.0 | 25.0 | 25.0 | 35.0 | 0.0 | 549.0 | 135.0 | 135.0 | 300.0 | 250.0 | 2,302.0 | 0.0 | 0.0 | 0.0 |
| 총계 | 3,946.3 | 306.1 | 788.1 | 619.6 | 1,293.3 | 928.4 | 728.2 | 898.2 | 724.7 | 1,163.6 | 828.8 | 1,594.4 | 970.7 | 1,454.3 | 973.8 | 714.0 | 12,658.9 | 1,103.9 | 1,330.8 | 1,330.8 |

자료: JICA(www.jica.go.jp, 검색일: 2016. 3. 7).

표 4-3. 일본의 연도별 對베트남 무상원조 분야별 지원 추이

(단위: 억 엔)

| 무상원조 분야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계획·정부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공공부문 | 0.0 | 10.5 | 15.1 | 15.0 | 6.8 | 17.9 | 11.5 | 6.5 | 23.9 | 25.8 | 45.7 | 28.4 | 14.6 | 0.0 | 0.4 | 4.1 | 17.8 | 15.5 | 0.0 | 0.0 |
| 농림수산 | 3.3 | 0.0 | 3.8 | 11.4 | 21.9 | 0.0 | 17.4 | 0.0 | 5.2 | 0.3 | 12.2 | 9.2 | 6.5 | 3.0 | 0.0 | 9.1 | 0.4 | 3.9 | 8.8 | 0.0 |
| 광업·제조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에너지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비즈니스·관광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인적자원 | 0.0 | 7.9 | 16.8 | 29.4 | 20.0 | 22.4 | 21.6 | 0.0 | 14.4 | 14.1 | 4.6 | 10.6 | 6.5 | 3.9 | 9.3 | 4.8 | 4.7 | 4.3 | 3.8 | 0.0 |
| 보건·의료 | 11.9 | 8.0 | 25.7 | 2.4 | 0.0 | 2.8 | 11.2 | 37.5 | 20.0 | 6.2 | 1.4 | 3.8 | 20.5 | 34.1 | 17.8 | 0.0 | 0.0 | 4.6 | 0.0 | 0.0 |
| 사회복지서비스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총계 | 15.2 | 26.4 | 61.4 | 58.2 | 48.6 | 43.1 | 61.8 | 44.0 | 63.4 | 46.4 | 63.9 | 52.0 | 48.1 | 41.0 | 27.5 | 17.9 | 22.8 | 28.3 | 12.6 | 0.0 |

자료: JICA(www.jica.go.jp, 검색일: 2016. 3. 7).

표 4-4. 일본의 연도별 對베트남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분야별 지원 추이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1995 | | | | | | | | | | | | | | | | | | | | |
| 계획·정부 | 8.8 | 7.5 | 6.5 | 7.6 | 8.6 | 11.2 | 11.9 | 5.3 | 4.9 | 8.4 | 9.5 | 9.8 | 7.7 | 14.0 | 12.7 | 14.7 | 19.2 | 16.9 | 15.6 | |
| 공공부문 | 30.1 | 7.2 | 8.8 | 15.5 | 24.8 | 26.2 | 20.9 | 19.8 | 9.4 | 11.4 | 14.6 | 9.2 | 14.0 | 17.9 | 19.0 | 24.3 | 39.1 | 29.5 | 28.3 | |
| 농림수산 | 8.4 | 5.1 | 7.7 | 5.1 | 10.0 | 11.2 | 9.0 | 8.7 | 7.9 | 9.7 | 9.8 | 11.7 | 9.7 | 7.7 | 9.3 | 11.6 | 17.8 | 13.9 | 10.8 | |
| 광업·제조업 | 7.4 | 5.5 | 7.6 | 1.9 | 3.1 | 5.0 | 6.6 | 6.9 | 4.6 | 2.9 | 3.3 | 1.1 | 0.8 | 0.9 | 1.0 | 1.9 | 3.7 | 2.5 | 1.5 | |
| 에너지 | 6.1 | 0.4 | 0.2 | 1.1 | 2.5 | 2.0 | 3.8 | 3.8 | 6.8 | 3.0 | 3.8 | 2.2 | 2.0 | 1.4 | 1.7 | 1.7 | 5.2 | 1.3 | 2.9 | |
| 비즈니스·관광 | 0.4 | 0.2 | 0.2 | 0.8 | 0.2 | 1.9 | 3.1 | 1.3 | 0.3 | 0.6 | 1.5 | 1.5 | 1.5 | 1.4 | 1.0 | 2.4 | 3.9 | 3.4 | 3.1 | |
| 인적자원 | 4.2 | 2.7 | 4.2 | 6.5 | 4.2 | 7.8 | 11.2 | 9.5 | 10.6 | 9.2 | 6.9 | 8.2 | 7.3 | 6.9 | 6.0 | 5.2 | 4.7 | 4.5 | 5.7 | |
| 보건·의료 | 9.2 | 4.7 | 6.7 | 5.9 | 4.8 | 5.8 | 9.5 | 8.9 | 8.9 | 7.0 | 5.0 | 7.5 | 7.2 | 6.3 | 5.2 | 4.3 | 6.5 | 6.3 | 8.0 | |
| 사회복지서비스 | 0.5 | 0.0 | 0.1 | 0.3 | 0.9 | 1.1 | 1.2 | 0.3 | 0.2 | 0.1 | 0.0 | 0.0 | 0.0 | 0.1 | 0.1 | 0.2 | 0.1 | 0.4 | 0.2 | |
| 기타 | 0.5 | 0.2 | 0.2 | 1.7 | 1.6 | 2.0 | 2.1 | 2.4 | 2.1 | 4.7 | 2.0 | 1.5 | 1.8 | 3.1 | 5.4 | 5.3 | 4.5 | 6.4 | 6.6 | |
| 총계 | 76 | 34 | 42 | 46 | 61 | 74 | 79 | 67 | 56 | 57 | 57 | 53 | 52 | 60 | 61 | 72 | 105 | 85 | 83 | |

(단위: 억 엔)

자료: JICA(www.jica.go.jp, 검색일: 2016. 3. 7).

4) 정부 및 유관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 활용

일본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며 지원 형태는 크게 재정지원과 비재정지원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은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Japan Finance Cooperation), 일본무역보험(NEXI),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의 기관이 해외사업진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담당한다(표 4-5). 특히 JFC의 해외전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진출 기업에 설비자금(용자기간 15년), 운전자금(용자기간 7년) 형태로 최대 7억 2,000만 엔까지 지원한다. 2% 이하의 저리융자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0.5% 수준의 특별금리를 적용받기도 한다. 채무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현지자금 차입문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JFC가 제휴한 현지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발행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베트남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표 4-5.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재정지원)

| 지원기관 | 분야 | 주요 사업내용 |
|-------------------|------|---|
| 일본정책금융공고 (JFC)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개 자금지원 • 채무보증제도 |
| 일본무역보험 (NEXI)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업자금 대부보험 • 중소기업 수출대금보험 • 지역기업 해외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
| 상공조합중앙금고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개자금 지원 • 장기 자금대출 |

자료: 김정곤 외(2014), p. 223 인용.

비재정 부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중소기업, JICA, HIDA, 특허청 등 다수의 기관들이 정책수립, 예산 지원, 종합지원, ODA,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시행 중이다(표

4-6). 이 중에서도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JETRO로 볼 수 있다. JETRO는 해외진출 계획단계에서 사업개시 및 확대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해외시장 및 경제전반에 대한 정보수집·분석·공유, 산업·지역별 전문가 자문, 해외전시회·세미나 개최, 해외판로개척 지원, 임대사무실 대여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³⁵⁾

표 4-6.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비재정지원)

| 지원기관 | 분야 | 주요 사업 내용 |
|-------------------------|--------------|--|
| 중소기업청 | 정책수립 예산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청 중소기업 자립화 지원 사업 • 사업가능성조사(F/S) 지원 사업 • 일본(JAPAN) 브랜드사업: 전략수립 및 브랜드 구축 •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인재육성 • 그룹 전략 수립 및 계획실시 지원 사업: 전문가 파견제도 • 24시 발당: 인큐베이터 사무실(27실), 스몰 오피스(38실) |
| 일본무역 진흥기구 (JETRO) | 종합지원 (대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조사·정보제공 • 해외 투자 상담: ①BOP·불균준 비즈니스 상담, ②농수산업·식품 수출 상담 창구, ③신흥국투자 • 투자환경·시장개척단 파견지원 • 세미나개최, 바이어 초빙사업 • 전시회참가지원 • 수출 유망안건 발굴 지원 사업 |
| 중소기구 | 종합지원 (대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관련 연수 및 상담지원 (예, NextMarket-in) • 해외진출에 잠재력 있는 중소·소규모 사업자 조기 발굴 (예, F/S지원), (목표: 2018년까지 3,000개 이상 발굴) • 국내개최 전시회지원, 세미나 개최 |
| 일본국제 협력기구 (JICA) | O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사업, BOP 사업 관련 정보제공 •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의 보급·실증사업 |
| 해외인재 산업협회 (HIDA) | 인재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경영자 교류, 외국인사원 일어교육프로그램 • 신흥시장 개척 인재 육성 지원 사업 |
| 특허청 | 지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시 특허출원 보조금지원(보조율 50%, 상한액: 300만 엔) • 중소기업지재권(특허·상표) 침해 대책 지원 사업 (보조율2/3, 상한액: 400만 엔), ※시행기관: JETRO |

자료: 김정곤 외(2014, p. 218, 재인용).

35) 김정곤 외(2014), p. 216.

위와 같은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해외진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일본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지원이 되고 있다. 특히 JETRO의 경우 베트남에 하노이, 호치민에 각각 사무소를 설치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판로개척까지 제공하고 있어 일본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비즈니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가. 미국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저임금을 활용한 우회수출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했다. 반면에 미국은 FDI보다는 주로 교역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미국은 냉전시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했었고 1994년 對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국간에 교역 및 투자를 시작했다.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는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4-7). 첫 번째 단계는 1994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부터 2001년 미·베 무역협정 체결 이전까지의 시기로 Coca-Cola, Pepsi, P&G, 3M 등 소위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 관련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시기이다. 두 번째는 2001년 미·베 무역협정 체결 후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까지의 시기이다. 미·베 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관세가 40%대에서 3%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었다.³⁶⁾ 동 시기 미국의 Nike, J.C. Penny, Target, The Limited Brands 등의 주요 의류 브

36) 도정민(2001), p. 1.

랜드 유통업체들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일본, 홍콩 등 의류, 신발 생산 업체들과의 OEM 혹은 ODM 계약을 통해서 주요 제품을 생산해 미국시장으로 수출했다. 그 결과 섬유·의류 제품이 베트남의 대미 수출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의 시기이다. 베트남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시기이다. 또한 동 시기는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이자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표 4-7. 미국기업의 시기별 베트남 진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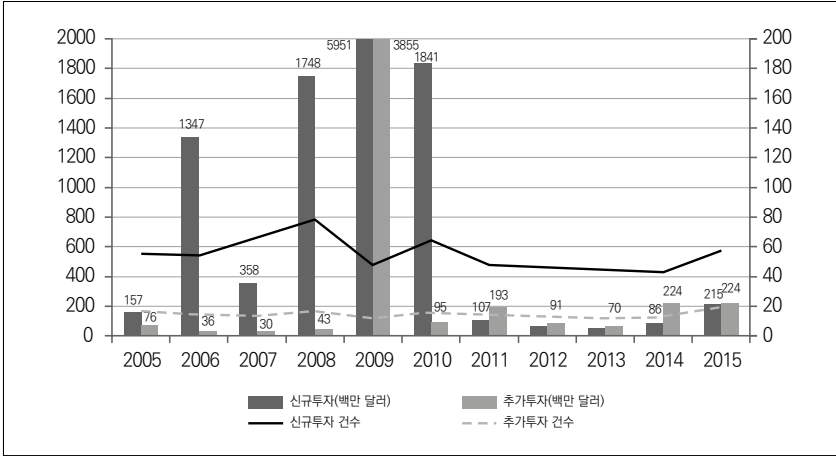
| 연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1994~2000년 | 2001~2007년 | 2008~현재 |
| 특징 | 경제자유화 해제 초기 | 2001 미·베 무역협정 체결 관세인하 (40%대→3%) | 2007년 베트남 WTO 가입 중국시장의 대안 |
| 진출 유형 | 일용소비재 중심 진출 | 아시아 기업과 OEM, ODM 계약, 섬유·의류 대량 수입 | 대규모 FDI 시작 |
| 주요 기업 | Coca-Cola, Pepsi, P&G, 3M | Nike, J.C. Penny, Target, The Limited Brands | Intel, Digital logic |

자료: Cochran H.(2011), p. 5 참고해 저자 작성.

미국의 對베트남 투자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4-7). 미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진출은 2006년 인텔의 약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진출로 본격화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진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신규진출이 약 60억 달러, 추가투자가 약 3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8~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서구 선진권의 대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시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동 시기 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그림 4-7. 미국의 베트남 FDI 추이(2002~15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 검색일: 2016. 4. 3)과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기업의 전략적인 투자는 중국시장의 대안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소위 ‘China+One’ 전략과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전체 투자액의 변화도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2011년 미국은 EU에 22.5억 달러, 중남미에 7.9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9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1년 대비 2014년에 미국은 EU에 대한 투자를 24% 확대해 27.9억 달러를 투자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24.9% 증가해 7.4억 달러를 기록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로 회귀했음을 시사한다.³⁷⁾

최근 미국의 주요 베트남 진출은 기존 의류 수입 중심의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다국적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6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의 하나인 Intel의 대규모 투자로 시작해 인 프라 개발, 정유, 리조트, 화력발전, 부동산 등 투자 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되었

37) IMF(<http://www.imf.org>, 검색일: 2016. 4. 7); IHS Global Insight(<https://www.ih.com>, 검색일: 2016. 4. 7); EIU(2016); ADB(2016) 종합하여 저자 작성.

다. 2010년까지는 신규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부터는 추가투자 규모가 신규투자를 상회하고 있어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한 기진출 미국기업이 현지 사업규모를 점차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상자 4-2. 최근 미국기업들의 對베트남 주요 투자 사례

2006년 Intel HCM(10억 달러)
2008년 Dinh Vu Phase 2 HP(8.9억 달러), Coca-Cola(7.1억 달러)
Semtech Oil T(5.4억 달러)
2009년 Winvest resort BRVT(41억 달러)
2010년 AES MongDuong Thermo power BIT QN(21.5억 달러)
Skybridge real estate BRVT(9억 달러), Chevron Oil CM(7.7억 달러)

자료: Thai(MPI) 면담 자료(2016. 3. 30)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미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연구

1) 미·베 경제교류는 교역관계 개선 중심으로 진행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는 베트남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은 의류·섬유 등 주요 소비재의 공급처로 베트남을 활용해왔다. 특히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베트남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해온 아시아권 국가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다. 즉 아시아권 국가 혹은 미국기업을 막론하고 베트남 현지활동은 주로 대미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연히 베트남 내수 시장을 겨냥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베트남 정부도 1994년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 이후 대미 수출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2001년 미·베 무역협정 및 무역정상화(NTR), 2006년 항구적무역정상화(PNTR) 등 미국과의 주요 경제 이벤트 또한 주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교역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진전되어왔다.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략 또한 주로 수출 지원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수출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1차 2010~13, 2차 2014~현재)에 반영되었으며 ① 글로벌소비자와 미국기업 연결 ② 국제운송 편리화 및 비용절감 ③ 수출거래 금융접근성 제고 ④ 경제발전 우선과제로서 수출과 투자유치 촉진 ⑤ 글로벌 기회 창출 및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³⁸⁾ 미국 정부의 수출지원 활동의 주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정보제공, 자문, 수출지원 서비스, 연구, 금융, 정부간 협력, 협정체결, 무역규범 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³⁹⁾ 이러한 지원은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5년 TPP 협정 체결을 전후로 베트남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TPP 체결을 계기로 베트남의 투자여건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 증가를 예상한 기업들이 향후 베트남을 대미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TPP와 같은 미국 주도의 대미 교역환경 개선 조치가 대미 수출 전진기지에서 베트남을 자리매김했고, 또한 베트남 스스로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매력 향상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국가가 아닌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전략

일본이 대외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을 비용절감과 시장개척을 위한 개별기업의 전략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비된다. 일본기업은 기업간 협력구조, ODA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는 일본과 같이 직접적인 투자 지원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개별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따라 이루어졌다.

38) 김정곤 외(2014), pp. 113~117 참고.

39) 김정곤 외(2014), p. 99.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대거 중국으로 투자·진출을 한 것도 기업별 전략에 따른 것이지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고임금·고비용으로 인해 중국의 대안으로 베트남이 주목받으면서 다수의 기업이 베트남으로의 이전 혹은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권 주요국은 각각 JETRO, KOTRA, TAITRA 등 무역·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對베트남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베트남 현지에 설치해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 차원의 자유로운 투자전략에 맡기는 형태이다.

3) 중국의 대안으로서 베트남: China + One

최근 중국의 저성장 국면과 고임금·고비용 구조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자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을 중국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의류·섬유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통신 등 기술 집약적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일례로 2006년 Intel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LG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들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이 주요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Nokia를 인수한 Microsoft가 기존 중국의 생산설비를 축소하고 베트남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對베트남 투자 행렬에 가세했다. 2015년 TPP 체결로 인해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미국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4) 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를 활용한 이익단체화

미국은 일본의 JETRO와 같은 직접적인 무역투자 촉진기관이 없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미국기업의 베트남 내에서 투자·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AmCham Vietnam은 1998년 설립된 이래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비즈니스 연합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다. AmCham의 주요 활동은 ① 정보교류 조직 ② 무역·투자활동 조직 ③ 베트남 상공회의소·정부기관 연계 비즈니스 활동 촉진 ④ 베트남 정부와 회원사 간의 무역·투자·서비스 관련 미팅 조직 ⑤ 회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대정부 건의 조치 ⑥ 무역투자 관련 뉴스레터 발간 등으로 구성된다. 베트남 정부 주요 부처와 주요국 상공회의소 간의 대화체인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에서 AmCham은 EuroCham, KoCham, JBA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각종 법률·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해왔으며, 이들 상공회의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을 이끈 것도 AmCham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이었다.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015년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베트남은 근래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인 6.68%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트남 국민에게 고도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90여년 만의 가뭄은 농업부문의 부진과 수출 증가율을 둔화해 고도성장으로의 재진입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IMF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 경제전망 기관은 지속적인 FDI 유입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이 6% 초중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5-1).

표 5-1. 주요 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2015~20년)

(단위: %, YoY)

| 기관명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IMF | 6.7 | 6.3 | 6.2 | 6.2 | 6.2 | 6.2 |
| Global Insight | 6.7 | 6.5 | 6.5 | 6.6 | 6.6 | 6.4 |
| EIU | 6.7 | 6.3 | 6.6 | 6.8 | 6.3 | 3.2 |
| ADB | 6.7 | 6.7 | 6.5 | - | - | - |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IHS Global insight(유료 DB), EIU(유료 DB), ADB Economic outlook(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6. 2. 15) 활용해 저자 작성.

2016년 초 실시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 지도부(공산당 서기장, 주석, 총리) 전원이 온건보수파로 구성되었다. 이 점은 향후 베트남이 개혁보다는 안정추구에 무게를 두고 국가를 운영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사회·경제성장에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국영기업

개혁, 공직자 부정부패 등에 대한 개혁이 기존에 비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임 서기장으로 선출된 응웬푸쑹 서기장이 지난 정부로부터 유임되었으며 기존 베트남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개방을 지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개방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정치 환경의 변화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베트남 투자여건은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다. 긍정적인 경제전망과 TPP, 다양한 양자간 FTA 추진 등으로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경제전망이 긍정적이므로 베트남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각 투자국별로 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앞서 확인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초도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추가투자 비중이 낮았다. 최근 추가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 및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생산 공정상 많은 부가가치가 베트남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최근 투자부문이 다각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일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한국계 중

표 5-2. 주요국의 對베트남 투자 특징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초도투자 비중에 비해 낮은 추가투자 비중 • 노동집약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 •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투자부문의 쏠림 존재 • 대기업 투자가 중소기업의 동반 투자를 이끌 • 현지 부품소재 산업(supporting industry)에 대한 낮은 활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베트남과 투자 애로사항을 협의하는 공동협의체 운영 • 일본 전용공단 설치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기능 •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부동산, 호텔, 요식업 중심으로 투자 진행 •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미국과 베트남은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자료: 저자 작성.

소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있다. 한국계 다국적 대기업, 즉 삼성과 LG의 투자는 협력업체의 동반투자를 이끌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정부 및 민간단체가 투자 관련해 발생하는 규제문제를 베트남 정부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표 5-2). 또한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정부가 베트남 정부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미국의 베트남 투자는 아직 특별한 특징을 규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의 베트남 투자는 현재 요식업 및 호텔에 전체 투자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베트남을 전통적으로 투자처로 여기기보다는 상품을 수입하는 시장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도 미국에 대한 수출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베트남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어주는 대신에 미군의 베트남 주둔을 원하고 있다.⁴⁰⁾

주요국의 투자성격이 다른 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형식도 투자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 및 한국 기업의 진출행태는 유형화하기 쉽지만, 미국기업의 진출행태가 가지는 장점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투자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주요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행태

| 구분 | 일본 | 미국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앵커기업 중심의 클러스터형 진출 • 소규모 진출 후 단계적 확대: 소규모 공장 임대, Line Gari, Nokisaki • ODA 활용 인프라 개선 • 정부 및 유관 기관 해외 진출지원정책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간 경제교류의 중심이 교역관계 •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 차원의 투자전략 • 중국 대안으로 베트남에 주목: 미국의 중국+1 전략 • 이익단체로 기능하는 베트남 현지 미국상공회의소 |

자료: 저자 작성.

40)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중심 기지였던 남부 캄판 만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남정미(2016. 5. 21), www.choson.com(검색일: 2016. 5. 21).

먼저 일본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클러스터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집단적 FDI, 조인트 벤처의 활용, 라인가리(Line Gari)나 노키사키(Nokisaki)와 같은 start-ups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이 클러스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일본 ODA가 베트남 내 공단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기업들은 직접적인 생산라인을 베트남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해 투자해왔고, 최근 R&D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TPP가 비준되고 나면 교역과 투자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

2. 시사점

현재 베트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확대는 우리기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된다.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베트남을 조립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경쟁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화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중간기술자나 관리자는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만일 외국기업의 설립이 늘어난다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채용경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수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도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반가울 리만은 없다. 한정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화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 심화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베트남 현지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일본은 정부의 체계적인 진출지원시스템 하에서 기업의 진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신생진출 기업도 기존 진출 기업과의 보완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ODA를 동원하여 인프라, 특히 산업단지과 그 배후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주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일본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해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진출기업도 경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Nokisaki나 Line Gari와 같은 생산방식이 운용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반면에 최근 베트남으로의 한국의 투자는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그 주변에 1차와 2차 협력업체가 동반해서 진출하는 형태이다.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줄여 주지만, 다른 한편 대기업의 영업 상태가 직접적으로 동반진출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진출기업 간 협력적 구도가 형성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단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열악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이 기존 진출기업과 보완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진출 대기업에 자국산 부품소재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물론 자국산 제품의 품질, 단가, 납기 등이 우리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상관없이 자국산 제품의 활용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⁴¹⁾ 우리기업은 베트남산 제품이 품질, 단가, 납기 등 다 방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산에 이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⁴²⁾ 사실 부품소재산업의

41) Van Nam(2014. 11. 19), <http://english.thesaigontimes.vn>(검색일: 2016. 5. 21).

42) 2014년 9월 베트남 투자기획부가 개최한 'Seminar on Development of Vietnam's supporting industry'에서 삼성은 베트남산 부품 및 소재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밝혔지만 적절한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http://www.mpi.gov.vn/en/pages/tinbai.aspx?idTin=807&idcm=133>, 검색

미발달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반감한다. 이를 인식한 일본은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서를 2013년에 이미 베트남에 제출하고 그해 7월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얻어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베트남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삼성도 현재 20%의 부품만을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다.⁴³⁾ 이처럼 낮은 현지 부품소재 조달 비율은 우리 부품소재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진출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된다.

베트남에 많은 외국인투자가 몰리면서 베트남 내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동반진출한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미국의 베트남 진출전략이 우리기업의 진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기업 진출이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산업단지 건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인상공회의소나 유관기관을 구심점으로 삼고 우리기업 대상의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처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건설이 발전소, 도로, 통신, 상수도 등 다양한 인프라가 연계된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대규모 금융지원을 요구한다.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우리기업이 진출을 통해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작년에 수출금융을 통해 산업단지 건설을 시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높이살 만하다.

둘째, 구심점이 구축되고 나면 신규진출기업과 기진출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기진출기업의 신규진출기업 지원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신규진출기업이 활용하고 신규진출기업의 패기를 기

색일: 2016. 5. 21).

43) KOTRA(2013), 해외투자 동향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1104112919944247, 검색일: 2016. 4. 3).

진출기업이 배운다면 베트남 시장공략에 더욱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진출기업이 신규 창업을 지원한 실적에 따라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세금감면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 정보 분석 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일본기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진출 후 점차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협력업체가 대규모로 동반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다보니 외부여건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및 문제점, 경제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일본기업처럼 진출기업 간에 생산설비를 나누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Line Gari나 Nokisaki 같은 제도를 활용해 현지에서 시험생산하고 진출여부를 결정한다면 신생기업(start-ups)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해외진출을 통해 신생기업을 키우려는 우리나라의 전략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지원은 진출초기 고정투자 비용 부담과 현지 정보 부족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신생기업이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진출기업과 신규진출 희망기업 간 잉여 생산라인의 공식적 중계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정부도 우리 진출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베트남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정부와 일본기업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기업의 요구를 현재 KOTRA와 현지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해 수렴하고 있지만 대표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책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근 하노이 한인상공회의소가 다른 나라 상공회의소와 연대해 전문가 방문의 비자조건을 완화한 사례는 우리정부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베트남의 입장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

계정립에 애로가 있었듯이 베트남도 동일한 경험을 겪고 있다.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미국은 미군의 베트남 항구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만일 베트남이 미군의 베트남 항구의 활용을 허용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급랭할 수 있다.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우리의 생산기지로 보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1'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은 '태국+1' 전략을 통해 일본기업의 태국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도 베트남과 인근 국가를 생산기지로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외부적 여건이 가져오는 충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곽성일, 배찬권, 정재완, 이재호, 신민이. 2014.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곽성일. 2016. 「베트남 하노이 출장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경덕. 2013. 「일본기업의 베트남 진출방식」. Kotra 글로벌윈도우.
- 김석진. 2007. 「베트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 전망」. Issue Paper 2007-222. 산업연구원.
-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2014.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도정민. 2001. 「미-베트남 NTR 협정 승인에 따른 대미 수출봉제업체 전망」. Issue Report. 굿모닝증권.
- 이재호. 2016. 「베트남 호치민 출장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월)
- 홍석균. 2013. 「한국과 일본, 베트남 투자접근 방식에 확연한 차이 보여」. 대한무역투자공사 호치민 무역관.
- KOTRA. 2015a. 「2016 베트남 진출전략」. 하노이무역관.
- _____. 2015b. 「베트남 투자뉴스」. No. 473. (11월 20일)

[영문자료]

- ADB. 2016. ASEAN Development Outlook 2016. Manila.
- Anwar, S. and L. P. Nguyen. 201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The case of Vietnam."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25.
- Beugelsdijk, S., R. Smeets, and R. Zwinkels. 2008. "The impact of horizontal and vertical FDI on host's country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7.

- Blomstrom, M., R.E. Lipsey, and K. Kulchycky. 1988.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In: Trade Policy Issues and Empiric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MI. 2016. *Vietnam Autos report Q1 2016*. BMI Research. London.
- Cochran H. 2011. "China Plus One = Vietnam and ASEAN." presented in Asia-Pacific Business Outlook. (March 28-29)
- EIU. 2016. *Country report Vietnam*. May 12th. London.
- Freeman, Nick J.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An Overview." Paper prepared for the DfID Workshop on Globalisation and Poverty in Vietnam. Hanoi, 23-24th September 2002.
- Fukasaku, F., R. Luiz, and J. R. De Mello. 2000.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temporal causality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2 (7).
- Giroud, A. 2007. "MNE vertical linkages: the experience of Vietnam after Malaysia."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6, 159-176.
- Isumi & Ohono, K. 2015. "Industrial zone development: Key issues from the experiences of Japanese Industrial zone developers in Vietnam & Thailand." presented at GRIPS Developmetn forum. Addis Ababa.
- Kuchiki, A. 2005. "Theory of a Flowchart Approach to Industrial Cluster Policy." Discussion Paper No. 36.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_____. 2007. "Agglomeration of Exporting Firms in Industrial Zones in Northern Vietnam." In Tsuji, Giovannetti, and Kagami (eds),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New Technologies*. Cheltenham: Edward Elgar.
- _____. 2009. "Lessons from Asian Experiences of Industrial Agglomeration and Trade." presented at the IPD Task Force Meeting on Africa, held in July 2009, Pretoria, co-sponsored by IPD and JICA RI.
- Lipsey, R. E. and M. Y. Weiss. 1981.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 Statistics*, Vol. 63.
- _____. 1984.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of individual fir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6 (2).
- Nam Hoai Trinh and Quynh Anh Mai Nguyen. 2015.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Vietnam." *Developing Country Studies*, Vol. 5, No. 20.
- Nguyen Mai. 2003. *FDI va tang truong kinh te Viet Nam*. Bao Dao tu.
- Nguyen Thi Phuong Hoa.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Contributions to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1986-2001)*. New York: Peter Lang.
- Nguyen Thi Tue Anh, Vu Xuan Nguyet Hong, Tran Toan Thang, and Nguyen Manh Hai. 2006.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economic growth in vietnam*. Research Report. CIEM and Sida.
- StoxPlus. 2016. "Vietnam M&A Reaserch Report 2016: M&A Opportunities from Global Integration." issue 6.
- U.S. Department of State. 2015. *201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May 2015*. Washington.
- Vu, Van Chung. 2015. "Foreign capital inflows and economic growth: Does foreign capital inflows promote the host country's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case study of Vietnam and the intuitive roles of Japan's capital inflows on Vietnam's economic growth."
- Xuan, N. T. and Y. Xing.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16 (2).
- Yamawaki, H. 1991. "Exports and foreign distributional activities: evidence on Japanese firms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3.

[면담자료]

Thai Thu Phuong(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면담자료. "Overview on FDI of Korea, Japan, US, and China in Vietnam."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면담일: 2016. 3. 30).
Tran Toan Thang(CIEM) 면담자료. “Three Characteristics of FDI inflow.”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면담일: 2016. 3. 30).

[신문·보도자료]

남정미. 2016. 「오바마, 임지 중 베트남 첫 방문... 막혔던 무기 판매 길 완전히 열릴 듯」. 『조선일보』. (5월 2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1/2016052100178.html(검색일: 2016. 5. 21).
「미국기업들이 몰려온다! 베트남 투자 가속화」. 2015. 『신짜오베트남』. (5월 17일)
Van Nam. 2014. “Local firms kept out of supply chains.” *Saigon Times*. (November 19). <http://english.thesaigontimes.vn/37933/Local-firms-kept-out-of-supply-chains.html>(검색일: 2016. 5. 21).
Vietnam Investment Review. 2016. No. 1272/February 29.

[웹사이트]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검색일: 2016. 3. 14).
_____. 온라인 통계자료. 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5515(검색일: 2016. 4. 3).
베트남 투자기획부. <http://www.mpi.gov.vn/en/pages/tinbai.aspx?idTin=807&idcm=133>(검색일: 2016. 5.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9>
(검색일: 2016. 3. 5).
KOTRA. 2013. 해외투자 동향. 「첨단분야 대규모 해외투자로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 발전 기대감」.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131104112919944247(검색일: 2016. 4.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ea.gov>(검색일: 2016. 3. 14).
Doing Business. <https://www.doingbusiness.org>(검색일: 2016. 3. 14).
_____.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conomies/vietnam/>

#dealing-with-construction-permits(검색일: 2016. 3. 14).
JICA. <http://www.jica.go.jp>(검색일: 2016. 3. 7).
IMF. <http://www.imf.org>(검색일: 2016. 4. 7).

[데이터베이스]

ADB.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6. 2. 15).
EIU(검색일: 2016. 2. 15).
IHS Global Insight. <https://www.ihs.com>(검색일: 2016. 2. 15, 4. 7).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검색일: 2016. 2. 15).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aspx>(검색일: 2016. 3. 2).
WDI.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6. 3. 21).

[법률자료]

circular No. 20/2014/TT-BKHCHN.
circular No. 23/2015/TT-BKHCHN(2015/11/13).

[관련자료 목록]

임영석. 2014. 「일본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Overseas Expansion Strategy of Major Countries' Firms toward Viet Nam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KWAK Sungil and LEE Jaeho

Vietnam has taken the spotlight as a representative low-wage production base in Southeast Asia. Recently, very high estimates were made regarding Vietnam's growth potential due to the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such as stable inflation, robust economic growth, increase in FDI inflow, multi/bilateral FTAs, AEC(ASEAN Economic Community) and so on. As abundant low-wage workers, political stability, large scale population became positive factors attracting investment to Vietnam, FDI inflow to Vietnam is increasing rapidly. Recently, with Korean companies eyeing Vietnam as a strategic production base, Vietnam has emerged as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which accounted for 40% of Korea's investment to Southeast Asia. Therefore, the time has come to review Korea's investment strategy to Vietnam, considering the country's increasing strategic importance. That requires us to make reference to cases of investment strategies of the major investors such as USA and Japan, and revise the investment strategy to suit Korean Companies.

Although the Vietnamese economy has been sluggish during the global finance crisis,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such as inflation, trade,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have improved and

economic growth rate returned to the pre-crisis level (6.68%) in 2015. Recent robust economic growth of Vietnam is due to the surge of FDI inflow, which reached an all time high of 14.5 billion USD. In terms of trade, China and USA account for the biggest shares in Vietnam's trade; yet as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ncreased, Korea also emerged as the 4th largest export and 2nd largest import destination of Vietnam. Vietnam's potential as a global production base will only get bigger due to recent favorabl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 but there are a few negative factors as well; such as corruption, lack of skilled workers, and inefficiency of SOE (State Owned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Doing Business Index of the World Bank Group, which analyzes the business environment across economies, Vietnam ranked 90th out of 189 economies. Among 10 indicators for business environment analysis, Vietnam scored relatively high in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registering property, and acquisition of credit; but low in payment of taxes,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and resolving insolvency. Recently, investment environment of Vietnam has become more favorable due to improvement in FDI and employment terms by the revision of foreign investment laws and labor regulations.

Vietnam's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egan with a program of economic reform called 'Doi-Moi' in 1986. Since the lifting of US trade sanction on Vietnam in 1994, Vietnam started to attract large scale FDI projects. Based on FDI, Vietnam was able to achieve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investment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from major Asian investors such as Japan, Korea, and Taiwan accounted for the major share of FDI in Vietnam. However, as the main FDI sectors changed from labor-intensive to technology and capital-intensive industry, Vietnam's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transitioning to include more high value-added industrie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direct investment to Vietnam had mainly focuse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with large scale investments in electric-electronic industries by MNCs starting to increase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le initial investment represented the major share in Korea's total investment in Vietnam, the share of extension investment began to increase and FDI sectors also diversified since 2014. Japan's direct investment started to increase since Vietnam's accession to the WTO in 2007, and the Vietnam-Japan EPA in 2009. Japan has operated a consultative group organized by economic units, and also improved the business environment by establishing exclusive industrial parks for Japanese investors. Meanwhile, US-Vietnam economic relations mainly focused on trade rather than large scale FDI.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are expected to improve as a result of the conclusion of the TPP in 2015. The US also had a summit meeting with Vietnam on important agendas such as effectuation of TPP, and dispute-settlement in the South China Sea as a part of its rebalancing strategy to Asia. Based on large-scale FDI attraction, Vietnam is pursuing to take part in GPN(Global Production Network) corresponding to the entry of major investors into the Vietnam market. However, there are still lingering problems such as lack of infrastructure and skilled workers which remain as barriers to GPN.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promoting phys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operating a variety of consultative working groups.

Vietnam became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for Japan through the latter's 'Thailand plus one' strategy, enact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associated with Japan's high dependency on the Thai market.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type of FDI, there has also been rapid increases recently in Japanese M&A investment in the Vietnam market. Entry modes of Japanese companies in Vietnam market are diverse, and includes cluster strategy based on anchor companies, local partnerships like OEM, licensing, joint venture, and partnership with Japanese investors that have entered previously such as Line Gari and Nokisaki. These modes of entry are intended to minimize the risk in the initial stage, and share the infrastructure and know-how with accompanying firms or companies that entered previously. Japanese companies also tend to take advantage of large scale ODA projects and the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 or

related agencies. Meanwhile, US companies started to enter the Vietnam market since the US lifted its trade sanction on Vietnam in 1994. Then the large scale investment projects began to be carried out following Vietnam's accession to the WTO in 2007. However, US-Vietnam bilateral economic exchange is still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rade relations rather than investment issues. US companies have a tendency to establish their own investment strategies rather than take advantage of the support from government or related agencies. There are several supporting policies by government or related agencies for US companies, but AmCham usually acts as the interest group for US companies in Vietnam.

Based on case studies on investment strategies of US and Japanese companies in the Vietnam market, a series of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establishment of industrial parks to encourage investments by Korean companies to create clusters. In order to do this,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prepare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elicit cooperation from the Vietnamese government. Second, Korean companies need to arrange a compensation system which promotes sharing of experience accumulated by already-established Korean companies in Vietnam with the new-comers, while providing incentives to established companies in return. Third, a capacity building program should be prepared for Korean SMEs, especially for the analysis of local regulations and business environment. Fourth, Korean companies need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 to share production facilities, as Japanese companies have done. This could be a good solution for reducing the burden of fixed capital investment and lack of information at the initial stage. Fifth, Korean government and investors should establish a consultative group with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Sixth,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external risk by considering the entire Southeast Asia region as a single production base for Korea, and should build linkages between Vietnam and neighboring countries as part of a 'Vietnam plus one' strategy.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 2015년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 · 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 · 최유정 · 홍석기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 2014년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 · 박현정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 · 엄준현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 · 이효진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 · 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 · 김윤옥 · 서현교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 · 최호락

곽성일(郭性日)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석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ikwak@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공저, 2014)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5) 외

이재호(李在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 수료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공저, 2015)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전망』(공저, 2015)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 | 8만원 | | 4만원 |
| A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FAX | E-mail :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계간지 |
|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Overseas Expansion Strategy of Major Countries' Firms toward Viet Nam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KWAK Sungil and LEE Jaeho

미국의 베트남 진출이 중국의 이해와 상충하면서 베트남을 사이에 둔 미·중간 갈등이 도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베트남의 투자 유인정책에 관해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첫째, 산업단지 건설, 둘째, 신규·기진출 기업간 경험 공유창구 마련 및 유인제도 형성, 셋째, 한국 및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넷째, 진출기업간 생산시설 공유를 위한 중계창구 설치, 다섯째, 베트남 정부와 우리 기업 및 정부 간 협의창구 마련, 여섯째, 동남아 신경영을 위한 '베트남+' 형태의 진출 등을 제언한다.



ISBN 978-89-322-2418-3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